

2008. 5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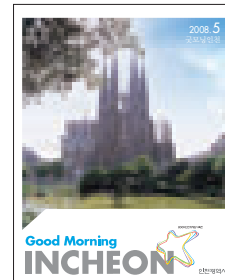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2008. 5

CONTENTS

May 2008 통권 173호



표지에 담는다

세계 명품도시 ⑤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진:이형준)

Fly Incheon_

- 08 브리핑
- 10 View
- 14 이달의窓
- 20 Fly Incheon News
- 24 군·구소식
- 25 포커스
- 26 시의회 소식
- 28 시의회 Zoom in
- 36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⑤
- 58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루원시티(LU1 City)
시민과 가까이, 행복이 활짝
‘안 시장 미국 방문 인천사업 홍보, 투자유치 논의’ 외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로’ 외
2014 인천아시아게임 유치 1주년 기념행사
‘제164회 임시회 의사 진행’ 외
365일 시민과 함께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유공원

Incheon Life_

- 04 5월 행사
- 16 인천을 걷다
- 30 행복느낌 90.7MHz
- 32 탐방
- 43 동서남북
- 46 Healty Life 건강백세
- 47 생활법률, 아하 그렇군요
- 52 Info Box
- 59 지상(誌上) 박물관

햇살보다 찬란한 오월 賀賀 好好
월미산
경인방송 Sunny FM
인천신용보증재단
국정원 & 인천지하철공사 소식
고혈압
싸움과 정당방위
‘저소득 아동 심리치료’ 외
건칠여래좌상

Incheoner_

- 27 모닝인터뷰
- 34 모닝커피 한 잔
- 35 김치찰각
- 40 막스막下
- 44 인천역사 책갈피
- 48 만화로 보는 인천인물 열전 ④
- 50 독자글마당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축제의 아웃사이더가 되시겠습니까?
‘을왕리해수욕장 갯벌체험’ 외
‘스윙댄스 판따라 댄스홀’ 외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그라운들’
최초 근대식 균형 함장 신순성
‘내 품에 온 셋째’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 광고문의 (032-440-2042)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8년 5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김진택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편집위원 정경숙
어시스턴트 유미옥
사진 심영보·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해동종합기획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햇살보다 찬란한 오월 賀賀 好好

계절의 여왕 5월. 싱그러운 햇살만큼이나 따스함이 넘쳐나는 계절이다.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족과 관련된 여러 기념일이 들어있어 가족의 사랑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이 좋은 계절 5월에 우리시도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로 시민과 함께 한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축하해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가족사랑 대축제

5월 5일 오전 10시~오후 4시 |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이날만 같아라... 모든 어린이들의 희망사항일 터이다. 온 가족이 참여해 마음껏 즐기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대축제'가 제86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 열린다. 우리시와 인천아동복지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어린이가 살기 좋은 인천'이라는 컨셉으로 마련하는 인천만의 특별한 가족축제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도자기체험 코너를 비롯해 케이크, 피자 만들기, 과학나라 체험과 가족보물찾기대회, 119 소방안전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이 풍성하고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 가수 왕 선발대회'가 열려 흥을 돋운다.

이밖에도 고적대 퍼레이드와 공군의장대 시범, 어린이 밸리댄스의 화려한 율동을 신호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가수의 축하공연 등 인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행사들로 꾸며진다. 한편 여성의 광장 공연장에서는 사랑극단 꼬마세상이 펼치는 '일곱마리 아기염소와 늑대' 뮤지컬 공연이 5월 3일부터 5일까지 하루 두 차례씩 무료로 진행된다. ☎ 435-7100, 7101, 7102

어린이날 희망축제

5월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들이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날 '희망축제'가 인천대공원 자락에 자리잡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펼쳐진다.

축제는 놀이마당, 체험마당, 공연마당, 이벤트마당, 나눔 마당에서 다채롭게 진행된다. 야외부스와 전통사랑방에서는 에어바운즈, 기차놀이, 도미노, 보드게임 등의 놀이를 즐길 수 있고 로비와 야외부스에서는 요술풍선, 미니폴리미니, 종이접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 나눔마당에서는 어린이 벼룩시장이 열려 나눔의 기쁨과 함께 작은 경제교육도 할 수 있다. '엄마 우리 춤에 자연이 보여요'를 타이틀로 한 창작춤극이 공연되고 마술과 클라운 마임도 눈을 즐겁게 한다.

■ 시내 곳곳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

행사명	장소	시간	주최	연락처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대축제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오전 10시~오후 6시	아동복지연합회	435-7100, 7101, 7102
어린이날 희망축제	청소년수련관	오전 10시~오후 5시	청소년수련관	440-6261
해역방어사령부 공개행사	해역방어사령부	오전 10시~오후 5시	해역방어사령부	452-4128
해경체험 행사	해경전용부두	오전 10시~오후 4시	인천해양경찰청	835-2825
어린이날 큰잔치	경인교대 운동장	오전 8시~오후 5시	경인교대	540-1123
어린이 축제 한마당	부평공원	오전 10시~오후 5시	부평교회	011-9981-3933
English Market Day 캐릭터 퍼포먼스	롯데백화점	오전 11시~오후 6시	롯데백화점	450-3803
어깨동무 내동무	부평공원	오전 10시~오후 4시	부평신문사	508-4346



이밖에도 토탈 공예작품 전시, 페이스페인팅, 타투, 즉석페인팅, 가족노래방 등도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 440-6261

이밖에

어린이들이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인천바다를 책임지고 있는 해역방어사령부는 부대공개 행사를(☎ 452-4128), 인천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경비함정을 공개하고 해양오염 사진전시회, 관현악단 연주회 등의 행사를 갖는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는 전화로 미리 신청해야 경비함정을 둘러보고 다른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 835-2825

미래, 어린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 교사들을 양성하는 경인교대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인교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힘을 합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행사를 펼친다. ☎ 540-1123

한편 부평공원에서는 부평교회 주최로 어린이날 행사가 마련된다. 축하공연을 비롯해 KBS관현악단의 연주로 어린이 동요대회 등이 열린다.

☎ 011-9981-3933



축제의 5월 즐거운 인천

함께 느껴요 화도진의 숨결을

제19회 화도진축제 5월 9일~5월 11일 | 화도진공원 일대

동구에서는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 깊은 행사를 역사적인 장소 화도진에서 연다. 공연행사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재현하는 어영대장 축성행렬과 축성퍼포먼스는 책으로만 접하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 외에도 평택농악, 경기민요, 강령탈춤, 남사당놀이, 택견 등 중요무형문화재 공연은 전통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 체험행사로 민속놀이, 서예, 국악기체험 등이 열리고 티셔츠, 손수건, 복주머니, 한지, 부채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멋과 슬기를 경험할 수 있다.

전시행사로는 서예작품, 공예품, 한복작품, 생활공구, 인천상륙작전 사진전 등이 마련돼 눈과 귀가 함께 즐겁다. 청소년가요제, 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등에 참가하는 것은 축제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다.

☎ 770-6102

2008 인천아시아이주민 축제

5월 18일 오전 11시~오후 8시 |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우리시가 소외된 이주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시아 이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되는 장을 만들기 위한 ‘인천 아시아 이주민 축제’를 연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유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축구대회, 농구대회 등의 체육행사로 함께 한다. 아시아 각국의 전통의상 퍼레이드가 식전행사로, 중국 사자춤 공연이 식후 행사로 각각 진행되고 각 나라 문화 프린지 공연과 아



시안 콘서트가 공연으로 이어진다. 어울림 마당에서는 여러 나라 문화체험, 음식 및 바자회, 전통놀이 체험 등이 열려 직접 참여하며 행사를 즐길 수 있다.

한편 인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된 아시아’를 주제로 아시안 사생대회가 열려 이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특히 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 451-4513

인천 Love Family Festival

5월 31일 오후 1시~9시 | 부평공원

우리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Incheon Love Family Festival’을 마련한다. 식전행사로 에어로빅, 재즈댄스, 댄스, 관현악연주 등 공연과 가정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2부에서는 3대가 함께하는 가족 합창대회가 열려 세대간의 갈등을 넘어 화합하며 흥을 돋운다. 3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화합행사로 가족사랑 마당극, 다문화 영상메시지, 이민자가족 장기자랑, 부부화합 퀴즈 등 결혼 이민자를 비롯한 부부가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4부는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마당이다. 초청가수, 장기자랑 등 가족과 이웃, 지역공동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 440-2372

Beat Play Fun 부평풍물축제

5월 28일~6월 1일 | 부평로, 신트리공원 등

인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부평풍물축제가 부평로와 신트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거리축제는 소탈하면서도 남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참여마당으로 국악프린지 페스티벌, 부평명사 한복패션쇼, 지역예술인 참여행사, 부평장날 퍼포먼스, 청소년 문화마당 등이 열려 살아있는 문화열기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 풍물타악기 체험, 전통 민속놀이 체험, 도자기 체험, 효 및 예절체험, 세계 타악기 체험, 아시아문화 체험 등을 통해 보는 축제에서 경험하는 축제로 재미를 옮겨볼 수 있다. ☎ 509-7516

바다그리기 대회 5월 31일 오후 1시~5시

월미도문화의거리, 자유공원, 인천항갑문 등

가천문화재단에서 마련하는 바다그리기대회가 5월 31일 월미도문화의 거리, 자유공원, 인천항 갑문 등에서 열린다. 초등부는 세 장소 모두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중·고등부는 인천항 갑문에서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하고, 행사 당일 접수도 가능하다. 부대행사로 인기 가수의 공연과 페이스페인팅 등이 열려 축제 분위기를 낸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그리는 동안 인천을 사랑하고 바다를 아끼는 마음이 새록새록 더해질 것이다. ☎ 861-3200

즐거요, 바다의 날 축제

5월 19일~31일 인천항 일원

바다의 도시 우리시에서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인천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가 주축이 되는 바다의 날 행사는 사이버 행사를 비롯해 바다 대청소, 해양교실, 팔미도 등대체험행사, 인천항 및 갑문 견학 등 다양하다.



특히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팔미도 등대체험행사에서는 팔미도 등대가 내년 전면개방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수줍은 모습을 공개한다. 배를 타고 팔미도에 도착해 등대를 둘러보고 팔미도를 답사하는 일정이다. 한편 5월 29일에는 인천항과 갑문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책에서만 보던 갑문식 도크가 뭍지 제대로 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 880-6227

꽃과 함께 즐기는 드림파크 야생식물 전시회

5월 9일~5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청사주변

쓰레기매립지에서 친환경 공원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는 수도권립지 드림파크에서는 야생식물 전시회를 연다. 멸종위기식물, 약용식물, 허브식물 등 10가지 테마 800여종의 식물이 전시되고 부대행사로 환경영화상영, 압화작품 전시, 환경문화체험장, 전통놀이 공원, 먹거리장터 등을 운영한다. 또 주말에는 매립지 현장견학도 할 수 있다. 한편 5월 18일에는 제8회 드림파크 그림그리기대회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행사 후에는 재활용 소재 악기를 활용한 퍼포먼스, 레크리에이션, B-Boy 공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된다. ☎ 560-9369 🍌

※ 5월 행사 및 바다의 날 행사 세부계획은 본지 57쪽을 참고하세요.

엑스포, 인천세계도시축전 으로 열린다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우리가 그동안 준비한 도시엑스포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으로 이름을 바꿔 다시 추진한다. 행사는 송도국제도시 3공구 일대와 주변의 중앙공원, 컨벤션센터 등에서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열린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왜 도시축전으로 변경됐나?

우리는 지난 2월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BIE)가 공식 제기한 도시엑스포의 이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효율적이고 핵심적으로 압축된 행사를 통해 미래도시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고 인천브랜딩을 통한 투자유치활성화라는 원래 행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

를 대상으로 하던 엑스포와는 달리 기업중심의 전시 참가와 비즈니스 성격을 강화하고 글로벌 브랜딩을 위한 컨퍼런스, 포럼 등 국제회의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화위복이라고 했던가? 우리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전 세계에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치러내 2020년 세계 10대 명품도시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축전의 컨셉은?

이번 행사의 주요 컨셉은 미래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로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상생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최첨단 유틸리티스 생활환경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다. 또한 친환경과 뉴에너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행사로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이해와 대체에너지를 활용하는 생활환경의 체험, 재미와 감동이 있는 축제로서 세계적인 볼거리 제공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축제의 장,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서 인간과 테크놀러지가 접목하고 융화하며 최첨단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장으로 만드는데 행사의 역점을 둔다. 진대제 조직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해 인천에 투자하면 돈벌고, 방문하면 즐겁고, 머물면 안락한 명품도시 인천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어떻게 치러지나?

행사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중앙정부의 후원은 물론이고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는 등 기본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주행사장과 부대행사장은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 일원의 94만여㎡로 기존의 행사장 일부 부지와 센트럴파크를 활용한다. 또 U-city 홍보체험



송도컨벤션센터

관(Tomorrow City)과 송도컨벤시아를 포함해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행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행사 명칭에 맞게 수정했다. 사업비는 행사장 조성비, 전시관 건립비 등 행사 종료 후 보전 불가능한 사업의 매물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규모를 실용적으로 수정해 1천억원으로 잡았다. 다만 우리시에서 250억원을 지원받고 750억원은 관람객의 입장수입 등 조직위의 자체 노력으로 확보하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다.

행사의 효과는?

도시축전의 관람객은 중국, 일본 등 가까운 나라의 외국인 관람객 50만명을 포함해 총 700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유료입장객은 500만명을 목표로 한다. 행사는 도시개발과 환경에너지, 첨단기술, 문화예술, 관광레저 등 총 5개 부문에서 전시와 컨퍼런스, 이벤트 등이 복합적으로 펼쳐진다. 이제부터 우리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행사명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이후로는 콘텐츠 등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내용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체협의 축제'로 발전시킨다. 진대제 조직위원장은 '21세기 신성장동력인 인천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인천의 비전과 가능성을 최대한 보여주는 행사로 치러내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

학술대회부터 아이스발레공연까지... 프로그램 '풍성'

도시축전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모두 1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조직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61개와 경제청 등의 간접사업 50개 등이다. 우선 전시 행사로 도시계획관, 환경관 및 임시 공동전시관 등 5개 전시관을 운영하고 인천테마파크체험전, 테디와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국내외 기업전시, 디자인코리아 2009, 세계환경예술작품 전시 등 48개 전시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이번 행사에 큰 비중을 두는 세계 학술대회가 준비된다. LUCI 총회, 세계지식포럼,

UN환경포럼 등 37개의 세계 학술대회가 치러질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느끼고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계획이다. 개·폐막식을 비롯해 아이스발레 초청공연, World Culture Street, 시민참여 난장, 국제마라톤대회, 한가위대축제 등 46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듯 80일간 인천에서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인천에 투자하면 돈벌고, 방문하면 즐겁고, 머물면 안락한 명품도시 인천'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 첨단 입체복합도시 루원시티입니다

과거는 흘러가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됐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가정오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입체복합도시인 루원시티(LU1 City)로 거듭나는 것이다. 지상과 지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미래형 교통시스템과 비즈니스와 주거,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최첨단 입체복합도시, 루원시티의 청사진을 그려본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시 도시재생국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 도시

우리시는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꿈꾼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공항과 항만, 우리나라 최초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을 발판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세계 속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가정오거리 재생사업을 추진하며 명품도시를 향해 성큼 다가서고 있다. 가정오거리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시는 이 지역을

재개발해 도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경제자유구역과 인천 국제공항의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이렇듯 우리시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려면, 먼저 도시 브랜드를 정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3일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지구 사업화 및 브랜드 개발 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가정오거리의 도시브랜드를 루원시티(LU1 City)로 최종 결정했

다. 루원시티는 아름다운 정자라는 의미의 가정(佳停)을 모티브로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이라는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이다. 그리고 ‘미래도시의 패러다임을 이끄는 최첨단 도시(Leading and Ubiquitous)’, ‘최고의 공간과 최고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명품도시(Luxury and Upper Class)’, ‘항상 깨어있고 어디서든 편안한 인간중심의 도시(Lively and Useful)’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직선으로 쭉 뻗은 경인고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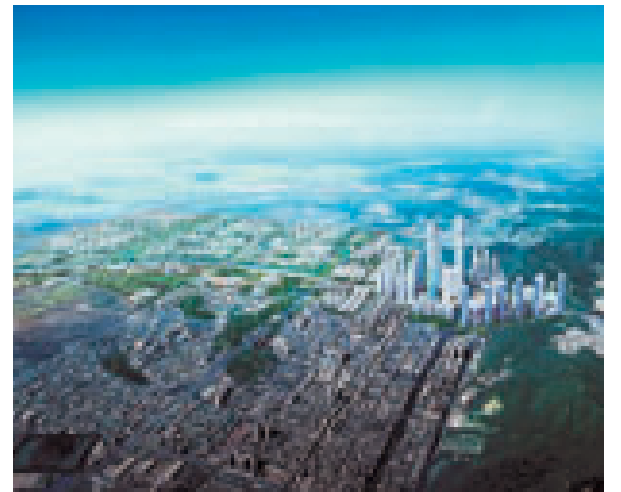
루원시티는 가정오거리 주변 구도심 97만2천141㎡를 철거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첨단 입체복합도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루원시티를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다. 루원시티를 입체도시로 바꾸는 것은, 바로 지상과 지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층 구조의 교통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즉 루원시티의 지상층에는 가정오거리 중심과 외곽을 잇는 간선 급행버스체계(BRT)가, 지하 2층에는 남북축으로 서곶로와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섬, 지하 3층에 바로 고속도로가 동서축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서인천 IC와 청라지구 7.49km 구간을 잇는 것으로, 이 도로가 뚫리면 경인고속도로 노선이 기존의 서인천~인천항에서 서인천~루원시티~청라지구의 직선 형태로 바뀌게 된다.

사업은 4개 공구로 나뉘어 시행되며, 그 가운데 2공구인 가정삼거리와 청라IC 구간 1.37km와 4공구인 청라IC 종점과 원창JCT 구간 2.8km가 지난 3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루원시티 사업도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3공구인 청라IC 구간 1km와 1공구인 서인천 IC 연결시점과 가정삼거리 구간 2.3km도 오는 10월과 내년 6월에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013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의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인천항 구간은 일반도로로 기능이 전환된다. 그리고 구도심 내 남북과 동서 방향의 간선도로망 체계가 정비되고, 방음벽을 없애고 녹지대를 조성해 우리시의 상징가로로 만들 계획이다.

루원시티의 또 다른 특징은 윈스탑 생활이 가능한 ‘도시 속의 도시’로 건설된다는 것이다. 즉, 업무·상업·문화·주거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해 단지 내에서 일상생활을 꾸리고 일하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보해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 루원시티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주변
- 면 적 : 972,141㎡
- 계획인구 : 1만1천364세대 / 3만명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개요

- 위 치 : 서구 가정동~원창동
- 사업규모 : 동서측 길이=7.49km, 폭=82m(고속 8차로, 측도 6차로)
남북측 길이=0.55km, 폭=50~60m(10차로)
- 사업기간 : 2004년~2013년

2013년, 루원시티 마무리

루원시티 사업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도시개발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6년 8월 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설계 및 영향평가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2009년 4월 공사에 착수해 2013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첨단 입체복합도시로 그 이름도 빛나는 루원시티. 하지만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바로 시민이다. 시는 이를 위해, 사업 구역 내에 보상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재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정택지지구와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에 대한 보상협의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첨단 입체복합도시

평범한 도시는 가라. 기존의 평면적인 도시공간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해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첨단 입체복합도시. 해외 선진국의 입체복합도시 사례를 통해, 2013년 세상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낼 루원시티를 미리 만나본다.

일본 오다이바

오다이바(Odaiba)는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상업·레저 및 주거 복합지구다. 1800년대에 인공섬으로 조성됐으며 1993년 인구 십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미래형 주상복합지역 ‘도쿄 텔레포트 타운(Tokyo Teleport Town)’을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시작했다. 그 후 1990년대 후반 대규모 호텔과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이 세워졌으며, 후지TV 본사를 비롯한 대기업이 속속 들어섰다. 또 도쿄 도심과 오다이바를 잇는 레인보우다리와 대중교통이 연결되면서 오다이바를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일본 록본기힐스

일본 미나토구에 있는 록본기힐스(六本木)는 1986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2003년 4월 사업이 끝나기까지 17년이 걸렸다. 하지만 공사진행 기간은 3년이고 계획 기간이 14년으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록본기힐스는 TV 아사히 방송국과 연계해 주변의 노쇠한 목조건축물 550세대를 다시 짓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후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업무·상업·문화 지구와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시설을 유치해 복합도시로 건설했다. 한편, 도시를 개발하는 주체는 모리부동산과 지역주민으로 구성



$\frac{1}{2}$

1·2 오다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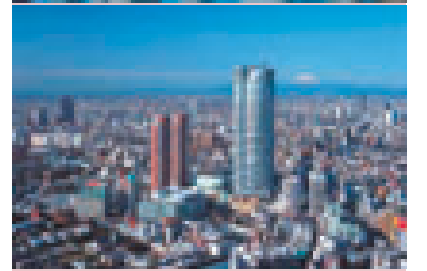
된 자치회로, 개발로 인한 이익 또한 개발사업자와 조합이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일본 미나토미라이21

일본 요코하마시에 있는 미나토미라이21은 24시간 깨어있는 국제문화도시, 21세기 정보도시, 물과 녹지, 역사에 둘러싸인 인간·환경 도시를 컨셉으로 1988년 공사를 시작했다. 지하철역 부근을 상업지구로, 육지 부근은 업무지구로 지정했으며, 해변 부근을 국제업무지구 및 워터프론트지구로 정해 도시를 복합적으로 개발했다. 그리고 사업지의 주요 지역은 보행 공간과 차량의 주행 공간을 구분하는 보차분리(步車分離) 형식으로 입체적으로 조성했다.

프랑스 라데팡스

라데팡스(La Défense)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을 중심으로 8km 지점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파리의 부도심이다. 라데팡스의 개발은 1958년 라데팡스 개발위원회가 30여년에 걸친 장기 개발구상을 세우면서 시작했다. 744만㎡ 규모의 라데팡스에는 국제적인 업무·상업단지와 주거시설이 조성돼 있으며, 파리 도심과 고속도로, 지하철, 일반 도로 등으로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다. 또 다층 구조로 공간을 활용해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를 랜드마크화해 세계적인 명소로 떠오르게 한 점이 눈여겨 볼 만하다.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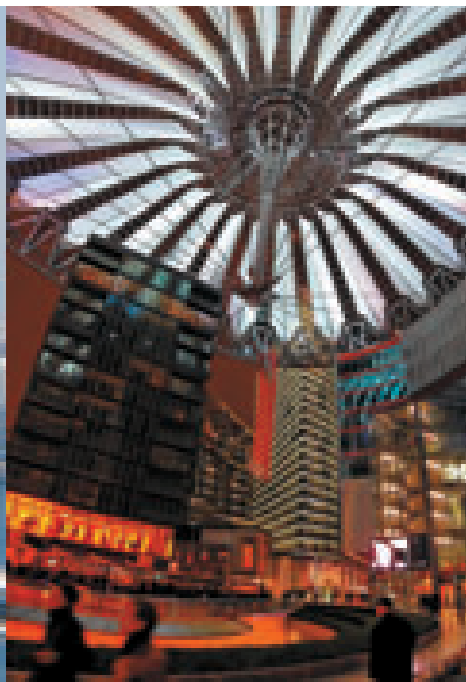
3·4 미나토미라이21
5 록본기힐스
6 소니센터

프랑스 리브고슈

리브고슈는(Rive-Gauche)는 200만㎡의 규모로, 파리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세느강변과 파리 13구역을 철도로 연결해 단절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공간을 활용해 도시를 입체적으로 개발했다. 또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파리 제7대학, 국립 동양어학원, 파리발드센도건축학교 등의 교육시설을 이전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을 분할, 저명한 건축가들에게 도시 디자인을 의뢰해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특히 리브고슈의 경우 정부, 파리지, 국영철도, 민간이 혼연일체로 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독일 소니센터

유럽의 록본기힐스로 불리는 소니센터는 연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베를린의 명소다. 소니센터는 1997년 포츠다머 플라츠 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개발하며 공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제적인 업무·상업단지로 떠올랐다. 그리고 지하철의 지하보도를 정비해 입체구조로 개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정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도시를 디자인할 때 불록 별로 세계적인 건축가를 참여시켜, 베를린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민과 가까이, 행복이 활짝

“달래 한 바구니 주세요. 아, 참 좋고 싱싱하다~” 사람 냄새 풀풀 나는 장터에서 물건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환하게 웃는 안상수 시장의 모습이 영락없는 우리네 이웃이다. 안 시장이 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재래시장으로 민정시찰을 나섰다. 그리고 서민경제를 몸소 체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느끼고 함께 고민하며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나섰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하장원 시 공보관실

재래시장을 찾은 특별한 손님

봄기운이 만연하던 지난 3월, 안상수 시장이 남동구 모래내시장을 찾아 시민들의 소박한 삶을 몸소 체험했다. 지난 1980년대 초 주택가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내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 곳은 농부의 건강한 땀방울이 스민 농산물과 각종 생활용품, 푸근한 인심이 가득한 먹거리까지, 말 그대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하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좁고 불편한 시장바닥을 떠올리면 안 된다. 모래



내시장은 우리시가 30여억원을 들여 지원한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난해 새롭게 단장했다. 그 결과 골목에 좁게 늘어서 있던 천막이 사라지고 지저분한 간판들이 말끔하게 정리됐다. 또 아케이드가 설치돼 시장을 이용하기가 편해지면서 찾는 이가 계속 늘고 있다.

“우리시는 그동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품권 발매와 편의시설 확충, 우수시장 특별전시회와 상인대학 운영 등입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인데, 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안 시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번 시장 방문도 경기를 몸소 느끼면서,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어려운 바를 헤아리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질 좋고 저렴한 물건에, 넉넉한 인심까지

안 시장이 모래내시장에서 처음 찾아간 곳은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중소기업청장상에 빛나는 그릇가게다. 반짝반짝 보기에 도 좋은 그릇들이 가게를 가득 메우고 있다. 안 시장이 필요한 그릇을 몇 개 고르고 상인에게 재래상품권을 건넨다. 이내 “많이 사셨으니 500원 깎아드릴게요”라는 말이 돌아온다. 이처럼 질 좋고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에누리과 덤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건 재래시장의 가장 큰 미덕이다. 바로 단순한 흥정이 아닌 사람과 사람사이의 훈훈한 정이 오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여러 명의 젊은이가 새벽부터 가게를 열고 씩씩하게 삶을 꾸려가는 어느 정육점이다. 안 시장은 이곳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삼겹살을 샀다. 보기와는 다른 서민적인 취향이 정겹게 느껴진다. 그는 또 어려웠지만 꿈과 패기로 빛났던 젊은 날을 회상하며, 이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혹시 자신이 찾아와 장사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이제나저제나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과연 수장(首長)다운 면모가 돋보인다.

장을 보느라 허기진 배는 뜨끈한 옛날식 국수 한 그릇으로 채웠다. 커다란 그릇에 푸짐하게 담겨 나오는 국수 한 그릇을 후루룩 마시니 가슴 속까지 훈훈함이 전해진다. 가격은 2천500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넉넉한 인심과 2대째 수작업으로 국수를 만들어 온 이 집의 자존심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인천 만들기

시민도 그네들의 삶의 터전을 찾은 안 시장이 반갑기만 하다. “시장님을 직접 뵈니, 참 든든하다. 시장님 덕분에 우리 재래시장이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 “우리시가 발전하도록 더 많이 노력해 달라. 그리고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잘 홍보해주길 바란다.” 안 시장이 가는 곳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이 이어졌다.

삶의 열정이 넘치는 시장 한 가운데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고, 그네들의 말 한마디도 허투루 흘리지 않고 가슴에 새긴 안상수 시장. 그는 앞으로도 발로 뛰는 행정으로 시민과 호흡하며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갈 것이다. 🍷



1 | 2
| 3

1·3 안상수 시장이 재래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며 시민들과 호흡했다.
2 안 시장은 앞으로도 허기진 배를 채우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처럼, 열린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360° 회전 숲과 바다가 함께 하는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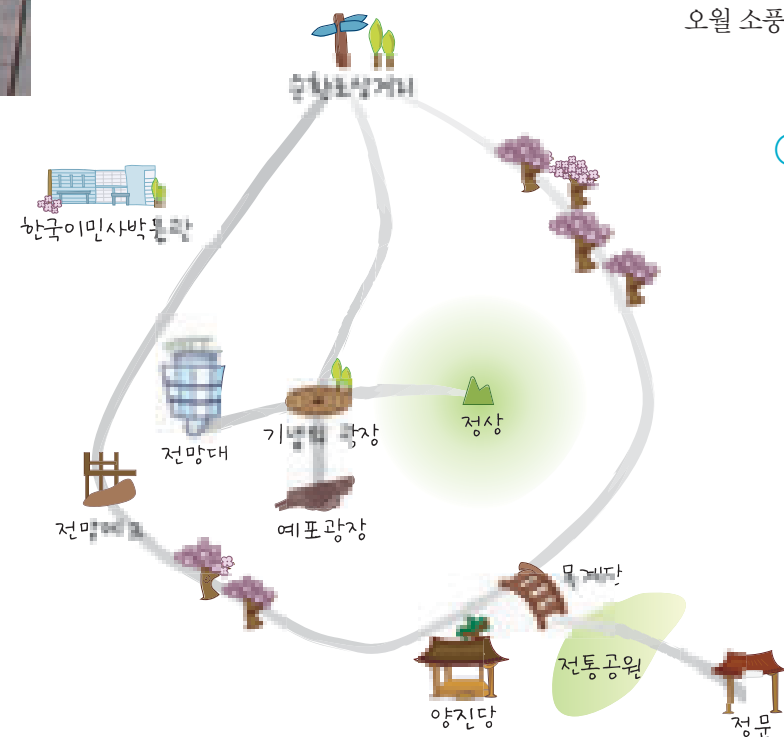
월미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을 품고 있는 ‘웅이’ 같은 존재이다. 조선 해안방어의 요충지이자 유사시 강화에 이르는 중요한 통로로서 월미행궁이 설치된 곳이었다. 개항 후에는 열강들의 포함(砲艦)외교 현장이기도 하다. 6·25 전쟁 때는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했고, 이후 반세기 동안 군 주둔지로 ‘금단(禁斷)의 땅’이었다. 월미산을 걷는 것은 쓰라린 시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역사산책’이기도 하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1 월미전망대 옥외전망데크
2 한국전통공원 내의 부용지

‘많이 바뀌었네’. 오랜만에 월미산을 찾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철책 둘러친 순환로를 따라 도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월미공원’이란 타이틀에 걸맞게 한국전통공원, 목계단등산로, 예포광장, 전망대 등 곳곳의 다양한 테마로 예기치 못한 즐거움을 준다. 이제 월미산은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며 분위기 ‘짹’ 하게 변신하고 시민들의 휴식처로 새롭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걷기는 전통공원을 거닐며 한국의 미와 여유에 흠뻑 빠지고 순환로를 거닐며 인천의 풍광에 새삼 빠져보는 즐거운 오월 소풍이다.



① 정문 ~ 양진당 (0.8km, 15분)

공원정문을 지나 바로 왼편의 전통식 쪽문을 통해 한국전통정원으로 들어선다. 얼마 전에 연못 애련지를 비롯한 국담원, 부용지 등 궁궐의 정원을 재현한 곳이다. 비록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을 재현한 것이지만 전통의 미를 감상하다보면 총총걸음이 팔자걸음으로 바뀌면서 몸과 마음이 금세 여유로워진다. 전통정원 가운데를 흐르는 개울을 따라 계속 거닐면 아담한 초가가 나온다. 그 앞에는 손바닥만한 논과 밭이 있어 잠시 아이들의 관찰학습장으로 좋다. 시원한 폭포를 뒤로하고 담장을 끼고 안동하회마을에 있는 양진당을 재현한 양반집으로 다가섰다. ‘여바라~’ 대문을 밀치고 짐짓 허세를 부리며 앞마당으로 들어선다.



3 | 4
5

- 3. 호젓한 순환산책로
- 4. 전통공원 내에는 개울과 연못 등 수변공간이 많다.
- 5. 순환산책로 삼거리의 이정표



② 양진당 ~ 전망 데크 (0.8km, 14분)

전통정원지구에서 순환산책길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름길에 놓인 나무계단을 오른다. ‘숲과 바다가 함께 하는 길’이란 멋진 이름이 붙은 월미산의 순환로는 한번 도는데 2.3km이다. 이 순환로를 돌다보면 인천의 모습을 파노라마식으로 감상할 수 있다. 본격적인 걷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3천200그루 벚나무에서 흠뻑리는 하얀 꽃잎 때문에 눈앞이 어질해지니 이를 어찌란 말인가.

③ 전망 데크 ~ 산책로 삼거리 (0.7km, 13분)

항구를 내려다보며 산허리를 도는 맛이 이채롭다. 적당히 휘어진 산책로는 걷기의 지루함을 덜어준다. 갑문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데크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인천의 참 모습을 바라본다. 산 채만한 선박에 실리는 수출용 자동차들의 모습이 마치 꼬마 장난감차 같이 보인다. 산책로 삼거리 조금 못미처 이전에 보이지 않던 건물 하나가 산 밑에 자리 잡고 있다. 6월에 개관할 한국이민사박물관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중남미 등 구한말 인천에서부터 시작된 해외이민의 역사와 자료 등 4천여점이 전시된다.

④ 산책로 삼거리 ~ 기념비 광장 (0.6km, 15분)

순환로에서 정상으로 향한 길 하나가 이어지면서 길은 삼거리가 된다. 삼거리에서 이정표를 따라 오르막길을 걸어 정상으로 발걸

음을 옮긴다. 숨이 조금 가빠올 즈음 넓은 광장이 나온다. 광장에서 다시 동쪽으로 난 길을 따라 오르면 낮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옛날 대포가 있는 예포광장이 나온다. 이곳에 서면 사방으로 시야가 터진다.

⑤ 기념비 광장 ~ 정상 (0.18km, 4분)

예포광장을 내려와 기념비광장을 지나 산꼭대기에 다다른 길에 접어든다. 해발 108m의 월미산 정상에 서면 인천 앞바다에 떠있는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를 이착륙하는 비행기 모습도 어렵곳이 들어온다. 정상 바닥에는 세계 주요도시의 거리와 방향이 새겨진 대리석이 깔려 있다. 영국 런던은 이곳에서부터 정서(正西) 방향으로 8천 860km이다.

⑥ 정상 ~ 공원정문 (1.3km, 20분)

공원 정문으로 내려가기 전에 월미전망대에 올라 이번 걷기의 숨고르기를 해본다. 사방이 유리벽으로 만들어진 전망대는 인천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명소 중의 명소이다. 야간에는 멋진 조명으로 월미산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이기도 하다. 정문으로 가는 내리막길을 들어서면 월미도 문화의 거리 놀이기구에서 쏟아지는 환호성과 즐거운 비명이 점점 가깝게 들린다. 🍷

※ 거리와 시간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7

- 6. 시야가 좋은 예포광장
- 7. 월미산 정상 바닥에는 세계 주요도시의 거리와 방향이 새겨진 대리석이 깔려있다.

한걸음 더



누구나 ‘자유인’ ‘낭만인’이 된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산책로 삼거리에서 계단을 이용해 월미도 문화의 거리로 바로 접근할 수 있다. 바다, 노을, 유람선, 그리고 깔끔한 핫집과 전망 좋은 카페들... 월미도는 젊음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수도권 관광 명소 중의 하나이다. 오른쪽으로는 가슴 넓은 바다, 왼쪽으로는 이국풍의 멋진 카페를 끼고 1km 가량 뻗은 ‘바다의 대학로’ 문화의 거리에는 해변을 따라 분수대와 높이 10m의 조명탑인 ‘빛의 열주’가 세워져 있다. 울퉁불퉁한 바위덩어리와 빨간 꼬마 등대가 서있는 친수공간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가깝게 느낄 수 있다. 다리 쪽 뻗고 바위 위에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 쐬면서 앞바다를 미끄러지듯 떠다니는 유람선과 영종도와 월미도를 오가는 페리호를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다.



안 시장 미국 방문 인천사업 홍보, 투자유치 논의

안상수 시장은 지난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시와 미국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진전시켰다. 안 시장은 라스베이거스를 시작으로 노스캐롤라이나의 랄리, 뉴욕, 볼티모어 등을 돌며 미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투자유치를 가시화시켰다.

먼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인천 익스텐디드(Extended)대학설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익스텐디드의 수업은 현지 대학의 수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대학생들 간에 상호교환수업도 가능하다. 또 세계적인 호텔그룹인 윈담(Wyndham) 호텔그룹을 방문해, 첨단 맞춤형 호텔시스템을 우리시가 추진하는 중·고가호텔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Dearch LLC 디자인회사, RTKL 설계회사, Cordish 도시개발사 등을 방문해 신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디자인사업 등 국제도시에 걸맞은 건설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협력키로 했다.

한편 안 시장은 그동안 한국인의 비자면제,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지원, 100년이 넘는 이민사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스콧 가렛(Scott Garrett) 뉴저지주(New Jersey) 연방하원



반기문 UN사무총장 접견

의원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가렛의원은 안상수시장에 미 한인사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공로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미 하원에서 지지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한인 최초의 직선시장인 뉴저지주 에디슨(Edison)시의 최준희 시장을 만나, 우리시를 소개하고 차세대 한인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등 뜻 깊은 만남을 가졌다.

안 시장은 또 메릴랜드 한인경제인 및 볼티모어 재미과학자 등 20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 및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등을 소개하고 동포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시가 세계5대 UN도시로 거듭나는 비전을 설명하고, UN의 동정에 대해 들었으며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안 시장은 또 귀국에 앞서 4월 15일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 및 재미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이민사박물관 개관, 한국국제교류센터 설립,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게임 개최 등을 홍보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미국 에디슨시 최준희 시장 면담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양해각서 서명식

송도국제도시 UN산하 국제기구 유치



송도국제도시에 국제전략기구(UN/ISDR) 산하의 'UN 도시방재연구교육센터'와 이 기구의 '동아시아 지역사무소'가 세워진다. 우리시는 지난 3월 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시와 UN/ISDR, 소방방재청 3자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UN 도시방재교육연구센터는 도시지역 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며, UN/ISDR 동아시아 지역사무소는 재해경감을 위해 한·중·일간의 국제협력을 지원·조정하게 된다. 이들 연구교육센터와 지역사무소는 내년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3981

송의운동장터에 역사관 건립

우리시는 철거된 남구 송의운동장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역사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송의종합경기장과 송의야구장은 1920년 조성된 이래 인천 체육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 송의운동장 터를 비롯한 이 일대 9만㎡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축구전용구장, 수상복합, 상업시설, 녹지공간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거듭난다. 시는 여기에 역사관을 만들어 송의운동장의 철거 전·후 모습과 항공사진, 설계 및 공사 진행과정 기록 등을 전시하고, 체험 테마존을 조성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도시재생과 ☎ 440-4452

공직자 '청렴생활 실천 선서'

우리시가 부정부패를 척결해 '클린-인천'을 실현코자, 공직자 청렴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한다. 지난 4월 17일 공직자 특별소양교육과 청렴생활 실천 선서식이 있었다. 강연은 '인천시 청렴도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교육에는 시 본청, 각 군·구, 산하기관에서 지도단속과 감사 업무를 보는 공직자 28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인천시민 5가지 하기·안 하기 선서식'을 통해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문의 | 시 감사관실 ☎ 440-3185

대형사업 설계 경제성 검토 실시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는 대단위 사업에 설계 경제성검토(VE, Value engineering)가 실시된다. 설계 경제성검토는 관공서가 대형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주 단계에서부터 공법과 설계내역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시는 도시철도 2호선 등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설계 경제성검토 작업계획을 세우고, 불합리한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7일 설계경제성검토 추진단을 발족하고 건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검토를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건설기획과 ☎ 440-3973

개발도상국 간부 공무원 방문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4월 1일 우리시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개도국 지방행정과정'에 참가 중인 11개국 간부 공무원 14명이다. 이들은 이날 시청과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홍보관을 방문, 이창구 행정부시장을 예방하고 우리시의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행정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며 "2014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41

시민기초질서 생활화운동 전개

우리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초질서 생활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시는 이를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문화시민운동 추진협의회'와 '기초질서 지키기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다중집합 장소 중심의 현장홍보 비롯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리고 관내 주요가로 15개 구간 18.2km를 기초질서 시범가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환경을 정비한 뒤, 기초질서 운동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23

국제도시 위한 경관위원회 구성



우리시가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지난 4월 8일 이창구 행정부시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과 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경관위원회는 향후 2년 동안 시가 추진하는 경관사업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시는 또 경관 조성과 관련해 ‘도시경관 창작 공모전’을 개최하고, 초·중·고교와 연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경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도시경관과 ☎ 440-4471

1인 1종목 생활체육 실시

우리시가 1인 1종목 생활체육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는 2014 인천아시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주일에 세 차례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의미의 ‘스포츠 7330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8억원을 지원해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결성 권장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전국생활체육대회 유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생활체육 인구를 현재의 45.3%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캠페인 공로자 50명을 선정, 표창하는 등 아시안대회가 열리는 2014년까지 스포츠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 440-4083

거주 외국인 특수시책 마련

우리시가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인천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4월 이창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국인 지원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 이달 중으로 외국인 실태조사를 벌여 각종 지원시책과 구체적인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인천국제교류센터가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거주 외국인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24

업무용 자전거제 도입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특수시책을 시행한다. 우선 시는 연수구와 부평구에 ‘업무용 자전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천의과대학교를 ‘자전거 시범직장·학교’로 지정하고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1구 1특수시책’으로 중구에 관광·레저형 자전거 전용도로, 강화군에 역사·관광형 자전거 전용도로, 연수구에 생활밀착형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개설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 시 자치행정과 ☎ 440-2424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 개최



‘제1회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가 자원봉사자와 가족 7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9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렸다. ‘We are the one’이라는 구호 아래 열린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의 화합을 이끌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자원봉사 선진도시야말로 세계 일류 명품도시의 선봉에 설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소망 및 장애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행사와 유명가수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74

인천공항 세계 최우수공항 선정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회(ACI)의 공항서비스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국제공항 가운데 3년 연속 1위에 오르는 인천국제공항이 처음이다. 또 인천국제공항은 종합 부문에서 최우수 공항으로 뽑혔을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공항’, ‘중대형 최고 공항’, ‘아시아·태평양 이용객이 선정한 최고 공항’으로 각각 선정됐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홍콩, 나고야 등 아시아 지역 공항이 2~5위를 차지했다.

문의 | 시 항만공항물류과 ☎ 440-3454

중동 UEG회장일행 방문



중동 UEG(United Eastern Group)회장 일행이 지난 4월 10일 우리시를 방문했다. UEG 회장 일행은 어운덕 정무부시장을 접견하고 우리시와 아부다비시의 자매결연 등 두 도시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을 도입하는 등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4452

청라지구 시티타워 디자인 선정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랜드마크가 될 시티타워의 디자인 공모 결과, ‘타워 인피니티(Tower Infinity)’가 1등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시티타워는 청라지구 중앙호수공원 내 9만㎡의 부지에 450m 높이로 세워질 예정이다. 타워 인피니티는 청라지구의 위상을 제고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징구조물로, ‘세계의 푸른보석 청라’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받았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이현석 경제자유구역청장 취임

이현석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난 4월 4일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 첨단산업, 의료, 교육 등 각종 프로젝트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 청장은 향후 2년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등 경제청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시 공무원, 우수리 나눔 활동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번 달부터 매달 받는 월급에서 1천원 미만의 우수리를 모아 불우 이웃을 돕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달 시청과 산하 사업소 전 직원 5천884명을 대상으로 참가 희망자를 모집했다. 그리고 인천시 금고 은행에 희망자 명단을 통보하고 향후 월 급여에서 우수리를 뗄 계획이다. 이렇게 모은 우수리는 연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쓰이게 된다.

문의 | 시 사회복지봉사과 ☎ 440-2674

송도유원지 관광단지로 개발

오는 2012년 송도유원지가 관광단지로 개발된다. 우리시는 송도유원지 일대 211만2천700㎡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송도유원지를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인천관광공사와 토지 소유주, 금융·건설 업체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올해 말까지 환경·교통·인구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안

으로 ‘파라마운트 무비 테마파크’를 착공, 내년 하반기에 1단계 개장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083

지구의 날 행사 개최



우리시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4월 19일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의 지구의 날 행사는 ‘섬씨 1도만 낮추면 지구가 즐거워요’를 주제로 지구에게 편지 보내기, 차량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 알아보기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또 1천여명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각 구에서 행사장까지 달리고, 자전거로 ‘SOS 지구’라는 글자를 만드는 이벤트를 펼쳤다.

문의 | 시 환경보전과 ☎ 440-3367

인천가족공원에 수목장림 조성

인천가족공원에 대규모 수목장림이 문을 연다. 우리시는 5월 말까지 2만6천㎡ 규모의 수목장림을 조성, 6월부터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모목으로는 병충해에 강한 20~30년생 굴참나무·상수리나무·신갈나무 1천주가 활용된다. 또 수목장림 입구에 합동 분향 및 제례단이 들어서고 잔디광장·산책로·대기실 등의 시민 휴식 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문의 | 시 노인청소년과 ☎ 440-393

군·구 소식

중구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로

차이나타운 일대가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된다. 중구는 차이나타운 1길(공화춘~포자방) 80m를 오는 10월부터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운행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차이나타운 2길과 청관언덕길 등 2개 구간 520m는 일방통행로로 지정기로 했다.

문의 | 중구청 ☎ 887-1011

동구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동구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자율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음식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화평동 냉면거리를 음식문화시범거리로 운영, 지원기로 했다.

문의 | 동구청 ☎ 761-0151

남구 주안 2·4동 재정비 추진

남구가 주안 2·4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을 통해 주거단지를 비롯해 상업·업무·문화시설과 대형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문의 | 남구청 ☎ 887-1011

연수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연수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가로를 조성한다. 사업 구간은 연수구청 앞부터 만우금길 사거리까지 약 0.6km 구간으로, 290여개 업소의 700여개 간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교체하게 된다. 사업에는 9억2천만원이 투입되며 올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문의 | 연수구청 ☎ 817-1011

남동구 물가안정 대책 마련

남동구가 ‘2008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2008년 지방물가 상승 목표율을 3.0%(±0.5%)로 잡고, 남동구물가대책위원회와 모니터링원 등을 운영하며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 남동구청 ☎ 466-3811

부평구 어르신 주택에 전기설비 수리

부평구가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된 전기설비를 수리하는 전담반을 구성,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담반은 전기 분야 자격을 갖춘 부평구청 공무원들로 매주 목요일을 점검의 날로 정해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다.

문의 | 부평구청 ☎ 527-5911

계양구 실업종합대책 추진

계양구가 ‘실업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구는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취업 곤란층 지원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등으로 연 2천95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 계양구청 ☎ 551-5701

서구 과·오납 세금 찾아주기 운동

서구는 오는 5월 26일까지 ‘과·오납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한다. 서구는 주소 불명, 미청구 등으로 과·오납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구민들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안내하고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문의 | 서구청 ☎ 562-5301

용진군 바다목장화사업 추진

용진군이 연평면 해역에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10억원이 투입되며 굴양식 시설 및 바지락 씨뿌림 어장 등이 조성된다. 군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이며,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한 뒤 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문의 | 용진군청 ☎ 899-2114

강화군 강화약쑥 해외시장개척

강화군은 ‘강화약쑥 해외시장개척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 4월 2일 위촉식을 가졌다. 강화군은 지난 2005년부터 강화약쑥을 연구해 각종 효능을 밝혀냈으며, 2009년부터 관련 제품을 산업화할 방침이다.

문의 | 강화군청 ☎ 930-3114

교육청소식

학교 생활지도 3無 원칙 추진

인천시교육청은 폭력, 학업중단학생, 담배연기 없는 학교 만들기를 학생생활지도 3대 중점 과제로 선정,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폭력대책반을 구성해 폭력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초중고 교사와 아버지 봉사단,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연합교외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3월에 이어 7월과 12월에 학생들의 휴연 실태를 조사하고 교원이 동참하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 인천시교육청 홍보팀 ☎ 420-8225



포커스 | 아시안게임 유치 1주년 기념행사

1년 전 감동을 고스란히, 2014년까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의 감동을 재현하고, 희망 찬 2014년을 약속하는 아시안게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인천의 이름으로 시민을 한데 어우러지게 한, 감동과 환희의 현장 속으로.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하장원 시 공보관실

우리는 2007년 4월 17일을 잊지 못한다. “Incheon!”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가 열린 쿠웨이트에 2014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로 인천의 이름이 올려져진 순간, 270만 시민은 감동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어깨를 부둥켜안았다.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우리시는 그동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시안게임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착실히 대회를 준비해 왔다. 그리고 2014년까지의 6년여의 준비기간 동안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대회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 교통·의료·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최첨단의 대회운영 체계를 마련,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올림픽을 능가하는 최고의 대회로 개최할 것이다.

이러한 포부를 실현하고 1년 전의 감동을 재현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4월 17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6천여명의

시민이 함께해 인천의 꿈과 미래를 확인했다.

행사는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대회 성공기원 행사’와 ‘시민과 함께하는 경축음악회’로 2부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대회 성공기원식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장창선과 아테네올림픽 태권도의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등 70여명의 선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시안게임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이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고 스포츠 꿈나무들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줬다. 이어 2014 인천아시안게임 기념식을 시작으로 경축음악회가 펼쳐졌다. SS501, 장나라, VOS, 주현미 등 인기가수들이 선보인 축하공연은 2014년을 향한 꿈과 희망을 무르익게 했다.

1년 전, 27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 모여 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관심과 지원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져, 세계인의 가슴에 ‘인천’이라는 이름을 선명히 새길 것이다. 🐦

시의회 소식

제164회 임시회 의사 진행



인천시의회 제164회 임시회가 지난 4월 21일부터 10일간 개최됐다. 시의회는 21일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관련 2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22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 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인천시의회, 태국 방콕시의회 방문



지난 4월 15일 노경수 부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인천시의회 의원이 태국 방콕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방콕시의회 초청에 의한 것으로, 양국 의회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도모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방콕시 부시장 및 방콕시의회 의장을 접견하고, 부라파대학 해양

과학관과 프란탈라이 해산물 수축기업 등을 시찰하며 두 도시의 교류기반을 닦았다. 또 방콕시의회에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항 특위 인방사 및 팔미도 방문



인천시의회 인천항 기능 재배치 및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14일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팔미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부대 이전과 관련된 추진 사항을 협의하고, 팔미도를 월미관광특구와 연계해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논의코자 진행됐다. 특위는 이날 인천항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전력 강화를 위해 부대를 이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부대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입법정책 자료집 발간

인천시의회가 입법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입법정책 자료집에는 우리시는 물론 타 시·도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사례가 담겨 있다. 또 지방의회의 활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입법정책 자료집은 매년 1·4·

7·10월 분기별로 4차례 발간되며 첫 자료집은 지난 4월에 발간됐다. 시의회는 향후 입법정책 자료집을 시·도의 우수 조례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입법정책과 관련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제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인천시의회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경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2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개정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의원입법으로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가칭)인천광역시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조례’와 ‘(가칭)인천광역시 건설 활성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개정을 위해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단체 및 시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조례 제·개정에 따른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여

김성숙 인천시의회원이 지난 4월 1일 제7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주권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은 전국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하게 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 소비자협의체 위원으로서 지역 소비자 권익향상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의 | 인천시의회 홍보팀 ☎ 440-6052

바다에서 인천의 미래를 보다

인천시의회 이상철 의원은 천혜의 자연에서 인천의 미래를 본다. 우리시가 품은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글·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바다를 빼놓고는 인천을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시는 1883년 인천항의 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동북아의 허브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질푸른 바다와 섬이 주는 낭만과 삶에 터전으로서의 애환은, 인천만의 독특한 색과 지역문화를 형성케 했다.

인천의 바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가 있다. 바로 인천시의회 이상철 의원(예결위 위원장)이다. 그는 천혜의 자연이 빚어 낸 아름다운 섬, 옹진군 백령도 출신이다. 섬에서 나고 자라 푸른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워 온 그는, 현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도서지역의 안정과 발전이다.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섬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인천은 국제대회 개최,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도서지역의 시민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수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섬 지역 주민들이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도서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낙후된 교육환경과 교통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는 도서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객선 운임비 지원이다. 그동안 도서주민들은 높은 뱃삯으로 섬과 육지를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었다. 또 부담스러운 뱃삯은 관광객을 섬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인천시 도서지역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올 7월부터 인천시민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대청도 학교에 도서실을 짓는 등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서지역 내에 종합레저타운을 건설하고 어촌시설을 확충할 것을 주장하며 도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지원이 도서지역은 물론 인천을 위하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우리시는 바다와 섬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만의 관광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해, 전국은 물론 세계 각 지로부터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이는 비단 도서지역 뿐 아니라 인천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연을 토대로 한 인천의 발전가능성을 토로하는 그의 눈빛이 파도처럼 일렁인다. 그 눈 속에 세계의 관광도시로 우뚝 서는 인천의 미래가 보이는 듯하다. 🍃





365일 시민과 함께 합니다

시의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시의회는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으로,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시의회 홍보팀

■ 시의회는 시민 편입니다

2008년도 인천시의회는 기본 목표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 의정을 수행해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한다. 둘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의회를 구현한다. 셋째, 현장중심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다. 넷째,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 등이다. 즉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시민을 기본으로 삼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확인되지 않는 부정적인 보도와 선입견으로 인해,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의회는 이처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시민에게 활짝~ 열린 의회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의정비의 일정금액을 모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우수한 학생들을 후원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랑 나눔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및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활발히 개최하는 것이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조례를 제·개정하기에 앞서 지역의 시민 및 사회단체와 다양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또 시민들이 의견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365일 의회청사를 개방해 시민이 원하면 언제나 공청회와 토론회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 사항을 각종 언론매체와 간행물 및 영상 홍보물, 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

“공부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던 과거의 의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365일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 대화하며 시민을 찾아가는 시의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장은 시의회가 구태의 모습을 버리고, 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한다.

■ 작은 목소리까지 들읍니다

인천시의회는 시정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열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지난 4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주민센터 관계자 및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토론회 앞서 의회와 군·구 홈페이지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란을 만들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외에도 4월 25일에 ‘인천항 발전 모델 및 선진 항만 구축방향 토론회’를, 29일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사업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또 5월에 ‘성공적 도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8월에는 ‘바람직한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올 하반기 중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와 ‘경제 관련 종합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토론회’ 등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해 의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애정 어린 비판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는 시민의 동반자, 바로 인천시의회가 추구하는 열린 의회다. 🍷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인기 코너다. 개그맨인 그는 Sunny FM ‘윤택, 김형인의 두 시가 좋아’에 게스트로 출현하며 라디오와 연을 맺었다. 그리고 감칠맛 나고 톡톡 튀는 입담으로 신규 프로그램 DJ로 전격 캐스팅됐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지난 4월 1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김일희의 달리는 인생 택시’는 일반적인 심야방송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선 신나고 활기차다. 보통 나긋나긋한 심야방송 DJ의 목소리와는 달리 김일희 씨의 목소리는 힘차고 씩씩하다. 또 밤 늦게 듣는 음악은 조용해야 한다는 통념을 깨고 신나는 리듬의 최신 성인가요를 선사한다. 독특한 주제의 랭킹을 뽑아 소개하는 ‘막무가내 베스트’도 청량제 같은 웃음으로 잠을 확 깨게 한다. 그 뿐 아니다. ‘인생극장’은 근래에 이슈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로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을 키우게 한다. 허를 찌르는 위트와 유머는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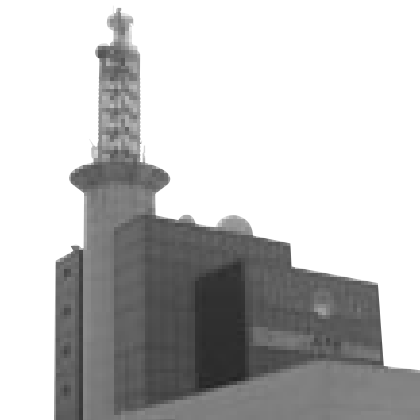
하지만 무엇보다 ‘김일희의 달리는 인생 택시’의 가장 큰 미덕은 청취자와 함께 호흡한다는 것이다. 새벽에도 깨어있는 우리 이웃의 사연을 전하고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네들의 녹록한 삶을 잔잔한 행복으로 물들인다. ‘김일희 씨의 생기 넘치는 진행에 잠이 확 달아났어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의 피곤을 싹 잊게 하는 좋은 방송이네요’, ‘야간 일이 고되지만 달리는 인생택시가 있어서 일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달리는 택시의 홈페이지에 청취자들이 올려놓은 칭찬의 글이다. 모두가 곤히 잠든 새벽에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대라면, 새벽 2시 주파수를 FM90.7에 맞추고 볼륨을 높이자.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떠오르는 해를 맞이 하는 이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차리라. 🌄

문의 : 경인방송 ☎ 830-1000(www.sunnyfm.co.kr)

새벽을 깨우는 행복주파수

인천의 지상파 라디오 ‘경인방송 Sunny FM’이 부지런히 삶을 열어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행복 주파수를 퍼트린다. 바로, 국내 최초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김일희의 달리는 인생 택시’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매일 새벽,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진행한다면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경인방송 Sunny FM’이 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 ‘김일희의 달리는 인생 택시’는 온 세상이 잠든 밤에도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국내 지상파 라디오로는 처음으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이는 야간 근로자가 많은 인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것으로, 공장직원과 회사원, 택시기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늦은 시간에 일하는 시민들과 교감을 나누며 삶에 소소한 기쁨을 전하고 있다.

|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 방송시간(월~금) : 07:00~09:00

이런 프로그램도 새로해요~



Sunny FM이 봄을 맞아 ‘김일희의 달리는 인생 택시’와 함께 아침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를 새롭게 선보였다.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며 인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뉴스를 엄선해 들려주는 ‘조간 브리핑’, 그날그날의 따끈한 뉴스를 전하는 ‘오늘의 뉴스’, 날씨와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날씨와 교통’ 등의 코너가 청취자를 찾아간다. 어윤덕 정부부시장을 비롯해 우리시의 명사들을 초청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파워인터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일 오전 7시 원기범과 함께 아침을 열면, 하루가 즐겁고 삶이 행복하다.

소기업 · 상공인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다들 어렵다고 하는 요즈음이다. 어느 사업체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는 이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제침체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연호, 김정호 씨 부부처럼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는 기관이다. 대출을 원하는 작은 규모의 기업, 영세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한 후 그들이 금융기관에서 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다.

대출 알선이라고 해서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고리대금이나 사채 등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적은 이자를 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 준다. 대출을 받고 싶지만 마땅한 담보가 없어 애를 태우는 영세기업 등이 재단에 보증 상담을 신청하면 재단에서는 사업장을 방문해 실사를 통해 신용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지원 여부와 적절한 지원 규모를 심사를 통해 결정하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해 준 ‘보증서’가 바로 ‘담보’가 돼 금융기관이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영세기업 자영업자 부담없이 대출

재단은 송도 갯벌타워의 본점을 비롯해 부평지점과 서인천 지점에서 활발하게 보증상담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루에 재단을 찾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보증 상담은 평균 50여건 정도. 이중 82% 정도가 대출 보증을 받았다. 재단이 업무협약을 맺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역농협을 통한 보증대출 지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에 따라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제도’를 지난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소기업과 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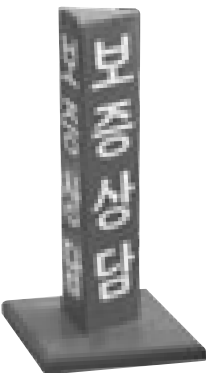
이처럼 소기업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보증 덕분에 재단은 올해 2월말 현재 3만6천여건, 약 8천250억원을 지원하는 명실상부한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

• **지원조건** : 지원기간은 연중 계속되며 동일기업당 4억원 이내에서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금융기관의 대출기간과 같고, 기준 보증료는 신용도와 이용기간 등에 따라 0.5%~2.0%까지 차등 적용된다.

• **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대표자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

• **이용절차** : 보증상담(재단 본점, 지점, 사이버 www.icsinbo.or.kr,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지역농협)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발급 → 대출(금융기관)

• **이용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 1·2부 ☎ 260-1500~1
부평지점 ☎ 508-1954~7
서인천지점 ☎ 569-0321~4
www.icsinbo.or.kr



담보가 아니라 신용

불황에 허덕이는 요즈음에도 창업시장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10년 동안 음식배달 전문점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5년 론칭한 ‘푸드콜’이 그곳이다. 푸드콜이 외식업 경영 전문가로 탄탄한 노하우를 다지게 된 데는 신연호, 김정호 대표 부부의 노력이 가장 컸지만 그 뒤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있었다. 사업의 실패를 딛고 작은 방에서 햄버거, 돈가스 체인점을 시작해 웬만큼 안정을 찾을 즈음, 배달을 나갔던 남편의 오토바이 사고로 위기를 겪게 됐다. 이때 인천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 받은 2천만원을 중심으로 지금의 ‘푸드콜’을 꾸미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한기 이사장

“고객에 감동 주는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한기 이사장의 일성이 다. 김 이사장은 우선 재단의 자산 확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재단이 충분한 자산을 확보해야만 보다 많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 인천시, 시의회 등에 적정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늘려 궁극적으로 자산이 확대되도록 힘쓰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을 꾸준히 확대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단 홍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재단이 설립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138억 자산에 10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재단이 760억 자산에 36명의 인원으로 질과 양의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단을 제대로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올해는 지하철 광고, 인천경영포럼 책자 광고 등을 통해 재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아울러 올해는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천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의 경우는 처리 기간이 1주일이었고, 5천만원이 상일 경우는 10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보증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축제의 아웃사이더가 되시겠습니까?



글 · 김진택 인천광역시 공보관

우리 인천 시민은 다시 축제의 방관자가 되고 말았다. 총선은 민의(民意)를 모아 국민의 대표가 될 지역 선량을 뽑는 ‘축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의 4·9총선 투표율은 42.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42.4%)의 뒤를 이

어 15위를 기록했다.

인천은 2002년 이후 치러진 6차례의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3번 꼴찌를 하는 등 계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1995년 이래 연속해서 4차례 모두 꼴찌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번 총선에서 ‘전국 투표율 꼴찌’라는 불명예에 딱지를 겨우 떼긴 했지만 말끔하게 벗어던지지는 못했다.

선거 때만 되면 인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간대별 투표율 추이에 그야말로 ‘피가 마른다’.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만큼은 꼴찌를 벗어야 한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혀 투표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그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마감 직후 발표된 인천의 최종 투표율은 42.2%로 또다시 꼴찌였다. 모두 자괴감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운 시간, 선거관련 공무원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도 획득한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인천 일부 지역의 부재자 투표율이 합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인천의 투표율이 42.5%로 최종 집계됨으로써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꼴찌를 겨우 면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은 왜 투표율이 낮은 것일까. 첫 번째 이유로 애향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는다. 인천 토박이가 20% 안팎에 불과해서인지 몰라도 지역에 대한 현안(懸案)과 이슈

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로 인해 내가 뽑는 우리 지역의 선량들은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부족하다.

정주(定住)의식이 희박한 것도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인천은 서울에 입성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임시 정거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서울에 자리 잡으면 언제든지 보따리 쌀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지역 인사를 뽑는 데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지역에 걸출한 인물이 없다는 것도 유권자의 관심이 비껴가는 데 한몫 한다. ‘대표 정치인’이나 ‘스타 정치인’이 있는 지역은 예외 없이 투표율이 높은 편이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우리 인천은 과거 조봉암, 장면, 박상훈 같은 전국적 지명도를 지닌 정치인을 배출한 적도 있었다. 이후 인천에 기반을 둔 정당이나 유력한 정치인이 없어 선거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투표율이 낮으면 인물 선정과 정책에 대한 유권자 의사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지역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

인천은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항구, 경제자유구역을 갖춘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여기에 2009 인천방문의 해와 세계도시축전 그리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빅이벤트가 잇따라 열린다. ‘인천’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우수 기업이 인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축제들이다.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이러한 축제에 투표하지 않는 것처럼 정작 시민이 빠지면 일회성의 공허한 행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축제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웃사이더로 남을 것인지는 순전히 개인의 몫이다.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은 또 다른 의미에서 애향심의 발로요, 민주주의 주인의식의 권한을 명확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



을왕리해수욕장 갯벌체험

작년 여름 사촌들과 함께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오전에는 갯벌에서 조개 줍고 오후에는 낚시와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과 갯벌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라 참 좋았어요. 갯벌에 들어가기 전 커다란 밀짚모자를 쓰고서 찰칵, 멋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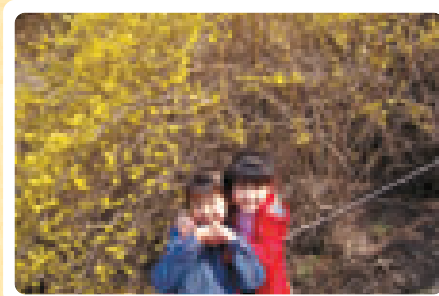
구화랑 | 서구 가정2동



고교 친구들과의 여행

저에게 가장 많은 추억을 주었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교시절 가장 많은 의지가 되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친구들입니다. 친구들과 잠시 여행을 떠나니 10년도 넘은 고교 시절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김태홍 | 부평구 삼산동



봄날의 개나리를 좋아하세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 중의 하나가 바로 ‘개나리’입니다. 만발한 개나리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 깊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노란 개나리와 함께한 노랑 병아리 조카들이랍니다.

한혜정 | 남구 용현2동



행복한 개떡

항상 이때쯤이면 산에서 밭에서 쑥을 뜯으시는 엄마! 어릴 때 저의 유일한 먹거리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영양식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엄마와 아이들과 같이 쑥 찾으러 가렵니다.

양환옥 | 서구 가좌2동



난 꼬마 헤라클레스

일산에 있는 동물원에 놀러 갔을때 정문에 있는 황소동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신화에 폭 빠져있는 아들 녀석이 헤라클레스처럼 황소동상과 힘싸움 환관을 한다고 난리네요.

이광기 | 중남 천안시



사진 그리고 비비~

오래전에 버렸을지도, 집 안 어느 구석에선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을지도 모를 비비가 13년 전 사진 속 내 허리춤에 있네요. 한때는 애지중지하던 물건이 시간의 힘에 밀려났듯이 영종도도 마찬가지로요? 막연한 안타까움의 정체는...

최진명 | 계양구 작전2동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스페인으로부터 쉴 새 없이 독립을 추구하는 카탈루냐(Catalonia) 사람들, 그들의 정신적인 고향 바르셀로나(Barcelona)는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다. 정열적인 플라멩코와 투우,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골목과 광장, 가는 곳마다 독특한 풍광과 이색적인 예술품을 두루 갖춘 바르셀로나. 예술, 친환경, 관광으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는 카탈루냐의 중심 바르셀로나를 찾아 흥미로운 탐험을 시작해 본다.

글·사진 이형준 <동화를 찾아가는 아름다운 여행> 저자

자유가 넘치는, 람블라스 거리

자존심 강한 카탈루냐 사람들,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Antonio Gaudy Cornet)로 대변되는 바르셀로나를 찾는 방문객이라면 너나없이 달려가는 곳이 람블라스 거리다. 람블라스 거리를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인지되는 것이 있다. 자유와 개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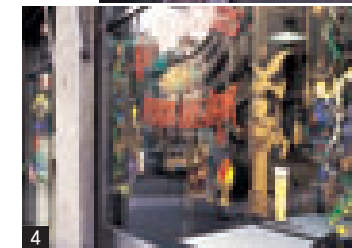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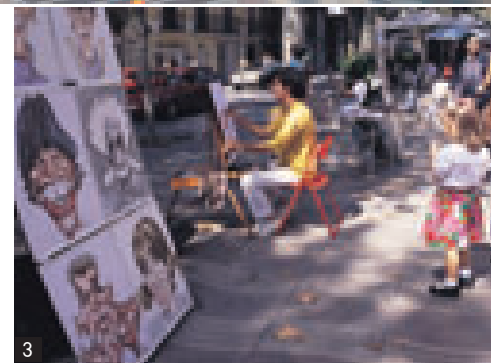
얼마 전 세계적인 여행 잡지인 '트래블&레저'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바르셀로나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일이 있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첫손에 꼽은 명소는 람블라스 거리로, 그 이유는 자유롭게 때문이다.

그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골목에서 흥에 겨워 색소폰을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를 필두로 의자에 앉아 휴식과 낮잠을 즐기는 행인, 신작로에서 초상화 주변을 에워싸고 자신의 생각을 왈카스처럼 이야기하는 시민들까지. 람블라스 거리의 풍경은 조용하고 차분한 것에 익숙한 방문객에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자유분방하다.

람블라스 거리를 둘러본 경험이 있는 방문객이라면 이 거리가 다른 명품도시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차도가 중앙에 위치하고 좌우로 보행자 거리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람블라스는 다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버스 중앙차선에 해당하는 곳을 보행자를 위한 인도로 조성해 놓고, 좌우로 자동차 도로와 그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조성된 아주 독특한 형태다. 이런 거리형태는 사람들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두 곳으로 분산해야 할 인도를 한곳으로 모아 자연스럽게 긴 광장의 형태를 형성한다. 람블라스 거리의 편리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가 주는 홍보와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자존심만큼이나 개성 강한 도시

오랜 세월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있어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는 도시 전체가 예술적인 향기로 가득하다. 대영박물관이나 루브르박물관같은 대규모의 박물관은 없지만, 유서 깊은 명소와 문화공간이 도처에 산재돼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즈넉한 고딕 지구를 필두로 고딕을 상징하는 뾰족한 탑과 위풍당당한 위용을 간직한 대성당, 신대륙 탐험을 마치고 귀국한 콜럼버스를 빼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이 맞았던 레알 마호르 궁전, 각양각색의 꽃문양 모자이크로 장식된 카탈루냐 음악당, 시민들의 휴식처 씨우파데야 공원 등이 그것이다. 탐험가 콜럼버스, 회화의 거장 피카소와 미로, 그리고 집시만을 화폭에



1. 바르셀로나 발상지로 알려진 고딕 지역의 고즈넉한 거리와 건물
2. 람블라스 거리에서는 사시사철 거리공연이 펼쳐져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3. 람블라스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리의 화가와 이를 구경하는 꼬마 아가씨
4. 미술관을 연상시키는 바르셀로나 도심에 자리한 카페



담았던 노벨, 입체파의 대가 곤살레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거장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바르셀로나는 특히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매년 도시 인구의 13배가 넘는 2천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의 작품과 명성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건축을 예술로 승화시킨 카사밀라와 미래 주택단지를 보여 준 구엘 공원, 그리고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꼽을 수 있다. 유명세로 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못 미치나 가우디의 대표작품은 독창적인 예술성이 돋보이는 파드랏 도오르 지역에 세워진 카사밀라다. 파도가 자연스럽게 울렁이는 듯한 측면과 암벽을 깎아 놓은 것 같은 카사밀라는 공동주택으로 우리네 빌라와 흡사하다. 4년 동안 공사한 끝에 모습을 드러낸 카사밀라는 건축이론을 완전히 벗어난 건축물로 처음 모습을 드러 낼 당시는 조롱의 대상으로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얼핏 보면 회반죽과 시멘트를 사용한 건물처럼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돌을 깎아 만든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찰흙을 마음대로 우그러뜨려 놓은 부드러운 곡선과 강한 역동성과 리듬이 이루는 환상적인 조화에 그저 고개가 숙여진다.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조성된 구엘 공원은 가우디의 모든 것이 집약된 건축물로 유명하다. 제자 조셉 쥐졸과 프란세스쿠 벨렌게르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착수한 가우디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원칙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직선을 배제하고 등고선을 따라 개설한 길과 주변에 조성된 조각과 예술품이다. 또한 구엘 공원의 모든 공간은 인간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낸 장소는 86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콜로네이드 홀이다. 본래 시장으로 조성된 건물로 물건을 거래하는 기능과 더불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 기능을 중시했음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 5. 아직도 작업이 진행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 6. 타일을 이용해 구엘 공원에 만들어 놓은 의자와 멋진 건축물
- 7. 온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바르셀로나 대성당 주변을 달리는 모습
- 8. 바르셀로나 중심가 분수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
- 9. 보트를 이용해 바르셀로나 항구의 수질과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관계자



구엘 공원은 1900년 이미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돌과 흙에 유약을 칠해 만든 타일로 건물과 시설물을 만들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축에 사용된 타일이 타일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분류되어 폐기를 기다리고 있던 제품을 재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구엘 공원이 오늘날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공원을 상속받은 구엘의 아들은 1918년 바르셀로나 시에 기증해 누구나 위대한 건축가의 흔적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도시의 얼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가 심혈을 쏟아 부은 작품이다. 16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작업을 마친 후 세상을 떠난 지 8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00년은 더 공사를 해야 완공할 수 있다. 또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8개의 탑을 중심으로 탄생의 문 앞을 장식하고 있는 예수의 탄생조각, 산상 수훈, 나사렛의 성스러운 집, 노아의 방주, 그리고 언약의 궤 등 저마다 독특한 공간으로 꾸며진 사그라다 파밀리아 납골당에는, 그의 시신이 오늘도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열정과 창의력이 빚어 낸 도시

개성과 열정이 곳곳에 배어있는 명품도시 바르셀로나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버스중차를 줄이고 대신 지하철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그 뿐 아니다. 19세기와 20세기 말에 건축한 건물 가운데 비교적 문화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재개발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새로운 개념의 도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청정한 해안과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오늘날 바르셀로나를 명품도시로 만든 것은 개성 넘치는 예술품과 문화 공간으로 꾸며진 도시 자체와 지칠 줄 모르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수립하는 당국,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정책까지 당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바르셀로나 시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바르셀로나는 명품도시라는 타이틀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스윙댄스 만따라 댄스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춤추는 '만따라 댄스홀'이 엘비스 프레슬리 트리뷰트 보컬 김우석의 노래에 맞추어 스윙댄스를 선보인다. 나이 지긋한 어른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복고풍 의상과 음악이 함께 하는 로큰롤 음악 스윙댄스는 5월의 밤을 한껏 여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일시 _ 5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전석 1,500원

문의 _ ☎ 505-5995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이 작품은 앞만 보고 숨가쁘게 살아가는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 또한 소극장이기에 배우의 숨소리, 떨림, 눈빛 하나 까지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뮤지컬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일시 _ 5월 23일(금)~6월 8일(일) 오후 7시 30분

평일 오후 8시 / 토, 일, 공휴일 오후 4시, 7시(월요일 쉼)

장소 _ 남구학산문화원

티켓 _ 일반 30,000원 / 학생 20,000원

문의 _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 442-8017



인천시립합창단과 창원시립합창단의 'Choir Battle'



합창의 '부자(父子) 대결'이 펼쳐진다. 한국 합창계의 거장인 아버지 윤학원 지휘자의 인천시립합창단과 젊음과 열정의 아들 윤익중 지휘자의 창원시립합창단이 각각의 소리와 울림으로 무대를 물들인다.

일시 _ 5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10,000원, 7,000원,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합창단 ☎ 420-2784

타악그룹 잼스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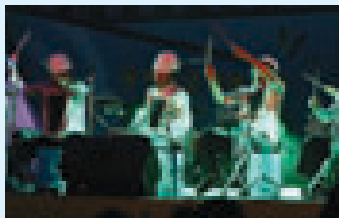
잼스틱은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꿈꾸는 음악인들에 의해 창단된 타악 그룹이다. 클래식 타악 주자 4인, 작곡 전공 신디사이저주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재치있는 연출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일시 _ 5월 17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사리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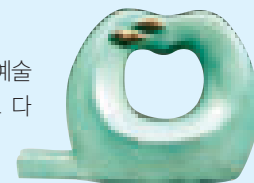
티켓 _ 전석 6,000원

문의 _ ☎ 777-9140~8 www.iecs.go.kr



인천여고 100주년 기념 미술동문전(녹미회)

여성교육을 통해 많은 인재를 배출한 인천여고가 개교 100주년 미술 기념전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이원적 개념의 차이를 뛰어넘는 '어머니'라는 또 다른 '性' 그 자체에 대한 어머니들의 모습과 그러한 어머니의 손길과 마음을 담고 있는 '어머니'를 화폭에 담아냈다.



5월 2일~8일 : 인천시 서예대전 및 초대 추천작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소전시실

5월 2일~8일 : 순수인연(하늘그림화)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5월 6일~11일 : 유성중 개인전작은 옹기의 아름다움 / 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5월 9일~15일 : '애전' 한지그림 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5월 9일~15일 : 인천여고개교100주년기념전(녹미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5월 9일~15일 : 진경의 재해석전(이순례)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5월 9일~15일 : 송동영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5월 16일~6월 12일 : 터키동우회, 인천조각회, 사생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5월 16일~6월 12일 : 미추홀 문화회관 작가 작품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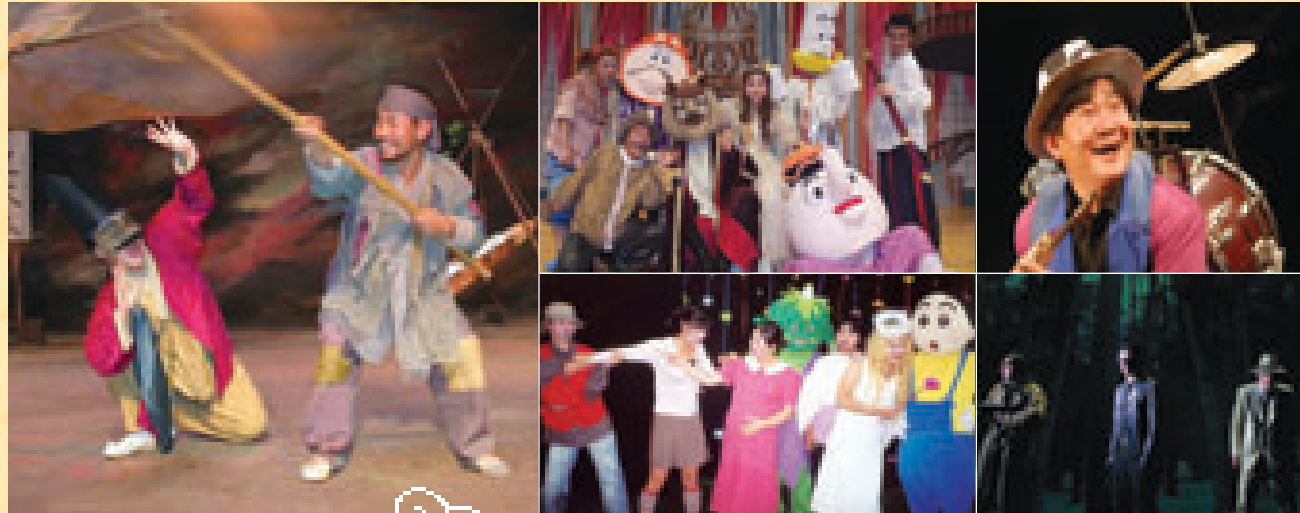
5월 16일~6월 12일 : 인천개항자료(사진)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5월 1일~12일 : 어린이환경그림잔치 - 가정의 달 특별전 / 신세계갤러리

5월 13일~19일 : 박운희 개인전 / 신세계갤러리

5월 22일~29일 : 인천미술의 현장과 작가전 / 신세계갤러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5월						
실버극단 학산 2008 순회공연						
2008년 4월~11월						
무로봉사공연 희망 단체 모집						
문의 : 남구학산문화원 사무국 ☎ 866-3993						
5 가족뮤지컬<여우야 뭐하니? 동산에 꽃피면 나하고 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 2만원, 1만원 아트노우 ☎ 1544-2972 연극 라이어 3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일반 2만5천원, 학생 1만5천원 ☎ 1544-2972 어린이뮤지컬 <우주 보물섬>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 일반 1만2천원 학생 1만원 ☎ 551-6602	6 연극 라이어 3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일반 2만5천원, 학생 1만5천원 ☎ 1544-2972	7 제26회 인천합창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5천원 인천음악협회 ☎ 876-8646 연극 라이어 3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일반 2만5천원, 학생 1만5천원 ☎ 1544-2972	8 인천시립교향악단 사령나눔 콘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7천원 5천원 ☎ 420-2781 연극 라이어 3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일반 2만5천원, 학생 1만5천원 ☎ 1544-2972	9 연극 라이어 3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일반 2만5천원, 학생 1만5천원 ☎ 1544-2972 금요예술무대 오창현의 드림매직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022 전수연의 작은 음악회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1천5백원 ☎ 505-5995	3 가족뮤지컬<여우야 뭐하니? 동산에 꽃피면 나하고 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 2만원, 1만원 아트노우 ☎ 1544-2972 오페라 인형극 <동글녀와 달영이> 부평기적의 도서관 / 오후 3시 무료 ☎ 505-0614	4 가족뮤지컬<여우야 뭐하니? 동산에 꽃피면 나하고 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5시 / 2만원, 1만원 아트노우 ☎ 1544-2972 연극 라이어 3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6시 / 일반 2만5천원, 학생 1만5천원 ☎ 1544-2972
					어린이뮤지컬 <우주 보물섬>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일반 1만2천원, 학생 1만원 ☎ 551-6602	
12	13 제44회 한국기독교인 합창단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6천원, 5천원 ☎ 501-6770 i-신포니에타 제7회 정기연주회- 불의 세레나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 834-1055	14 제25회 새마을가족음악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초대 새마을문화재단 ☎ 885-3611 커피콘서트V- 첼리스트 정명화가 말하는 정트리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 전석 1만원 인천8.아츠 ☎ 420-2027~8	15 오페라 길라콘서트 <행복한 오페라 여행> 계양문화회관 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일반 1만원 학생7천원 ☎ 551-6602	16 꽃향기 사람들 그윽한 열린음악회 주안동 성당 / 오후 7시 30분 학산문화원 ☎ 866-3993 시립교향악단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1천5백원 ☎ 505-5995	17 제26회 전국연극제 칠레 <신 상그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 4만원, 3만원, 2만원 ☎ 874-3178~9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무용단<한국무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88	18 제26회 전국연극제 칠레 <신 상그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 4만원, 3만원, 2만원 ☎ 874-3178~9
제26회 전국연극제 특별기획공연(아내)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7시 30분 / 2만원 ☎ 032)874-3178~9						
19	20 인천YWCA합창단 제15회 정기연주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 424-0524	21	22 인천시립합창단 제111회 정기연주회 choir battle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7천원, 5천원 ☎ 420-2784 시립무용단 3rd IDance 2008 눈으로 듣는 이야기-동화 속으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1만원, 5천원 ☎ 420-2788	23 스윙댄스 - 댄파라데스를 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1천5백원 ☎ 505-5995 창작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사이>(~/6/8) 남구학산문화원 / 평일 오후 8시 토, 일, 공휴일 오후 4시, 7시(월)일 일반 3만원, 학생 2만원 인천시민문화예술회관 ☎ 442-8017	24 제26회 전국연극제 본선 진출작-인천광역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 874-3178~9 토요상설무대 인천시립극단- 철부지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420-2790	25 제26회 전국연극제 본선 진출작-강원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 874-3178~9
26 제26회 전국연극제 본선 진출작-대구광역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 874-3178~9	27 제26회 전국연극제 본선 진출작-충청남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 874-3178~9 동요와 만들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7시 30분 / 5천원 ☎ 760-3431	28 제26회 전국연극제 본선 진출작-전라남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 874-3178~9	29 제26회 전국연극제 본선 진출작-충청북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 874-3178~9	30 제26회 전국연극제 본선 진출작-연변교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 874-3178~9 인천 유스 타악기 앙상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7시 30분 ☎ 760-3431	31 제26회 전국연극제 본선 진출작-제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 874-3178~9 인천 유스 타악기 앙상블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출 오후 4시 ☎ 760-3431	6월 1 제26회 전국연극제 본선 진출작-부산광역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7시 30분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8천원 ☎ 874-3178~9



100년 연극여행 상상력의 유쾌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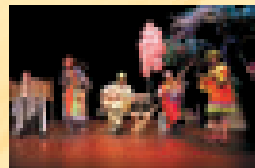
40일 동안 인천은 연극에 푹 빠진다. 전국 15개 시·도를 대표하는 연극 작품과 해외의 우수 작품, 그리고 연극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연극 축제 '제26회 전국연극제'가 5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42일 동안 인천종합문화예회관 대·소공연장과 야외무대 및 광장, 서구문화회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 전국 연극제는 우리나라 연극 예술의 초창기 역사를 되돌아보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100년의 연극여행'이란 주제를 따라 우리나

라 연극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의미를 갖는다. 공식행사는 개·폐막식과 전국 15개 시도 대표 작품들의 본 경연대회, 환영 및 환송 리셉션 등으로 진행된다. 개막식 행사는 5월 23일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회관 야외 광장에 마련되는 특설무대에서 열리는데 연극 100년사를 테마로 시대의 흐름별로 5개 작품을 선정, 이미지화한 공연과 연극제 개막을 알리는 축하 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연극제의 메인 행사인 경연대회는 전국 15개 시도 대표작과 해외 교포들이 준비한 작품 등 모두 17개 작품이 경쟁한다. 5월 24일 대전을 시작으로, 6월 9일 울산까지 모두 17개 작품을 인천종합문화예회관 대·소 공연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 연극제에선 프랑스, 칠레, 일본을 비롯해 본 경연대회 참가팀인 연변교포팀과 재일교포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이번 연극제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극 페스티벌'과 국내외 우수작품을 만날 수 있는 '소극장 초청 페스티벌', '특별 기획 공연' 등 다양한 공연행사가 준비된다. ☎ 874-3178~9

중문화관 5월 공연

공연문의 ☎ 760-7860

일본인 고지마에아와 핫토리 클라운 마임



클라운 마임이란 피에로와 어릿광대의 마임이다. 몸짓이나 표

정에 의해서 표현하는 무연극이다. 마임과 함께 마술, 외발자전거·장대 타기, 풍선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된다.

일시 _ 5월 3일(토) 오후 2시

평양예술단 초청



에서 활동을 했던 예술인들로 구성된 창단한 예술단이다. '반갑습니다', '휘파람', '삼천리의 사계절(군무)', '쟁강춤(군무)' 등을 선보인다.

일시 _ 5월 10일(토) 오후 2시

7080 세대를 위한 '화려한 외출'



장르인 하드락과 모던락 그리고 블루스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불놀이야' 'What's up', '누구없소', '한동안 땀했었지' 등을 들려준다.

일시 _ 5월 24일(토) 오후 2시

첨단기술 보호가 곧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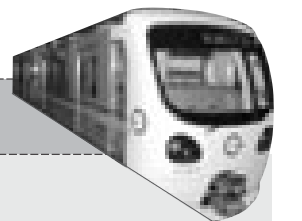
날이 갈수록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정원 '산업기밀 보호센터'는 2003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총 129건의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적발해 약 188조 5천500억원 상당의 국익유출 피해를 예방했다. 기술유출은 휴대폰,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자동차, 조선 등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기업체 및 연구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보안 의식 설문조사(2006년)' 결과에 따르면, 보안예산 투자에 대해 과반수 이상(64.6%)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또한 보안예산 비중도 전체예산의 1.8%에 그치는 등 보안 분야에의 투자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의 CEO가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에만 치중하면서 보안을 비생산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등 임직원의 보안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첨단기술 등 중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인원, 문서, 시설, 전산 등 분야별로 체계화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보안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

산업스파이 신고 상담전화 ☎ 111, 032-437-16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nisc.go.kr

인천지하철공사 창립 10년 ... 재도약의 원년으로



2008년 4월 15일, 인천지하철공사가 창립 10돌을 맞이했다.

100여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경인선이 개통된 인천은 198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복잡해지는 교통문제 해결 대책으로 인천지하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1993년 7월 3일 1호선 기공식, 1998년 4월 15일 인천지하철공사 설립, 1999년 10월 6일 인천지하철 박촌역과 동막역을 잇는 21개역 20.4km 개통, 이어 12월 5일 굴현역 개통으로 22개역 21.9km를 운행하였고 지난 2007년 3월 16일 국제공항철도 환승편의를 위해 계양역을 개통했다.

인천지하철은 현재 총 23개역 22.9km를 운행하며 1일 약20여만명을 실어 나르는 인천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9년 국제도시 송도까지 1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인천

지하철은 총 29개역으로 늘어난다.

개통 이후 인천지하철은 수송분담율 10%를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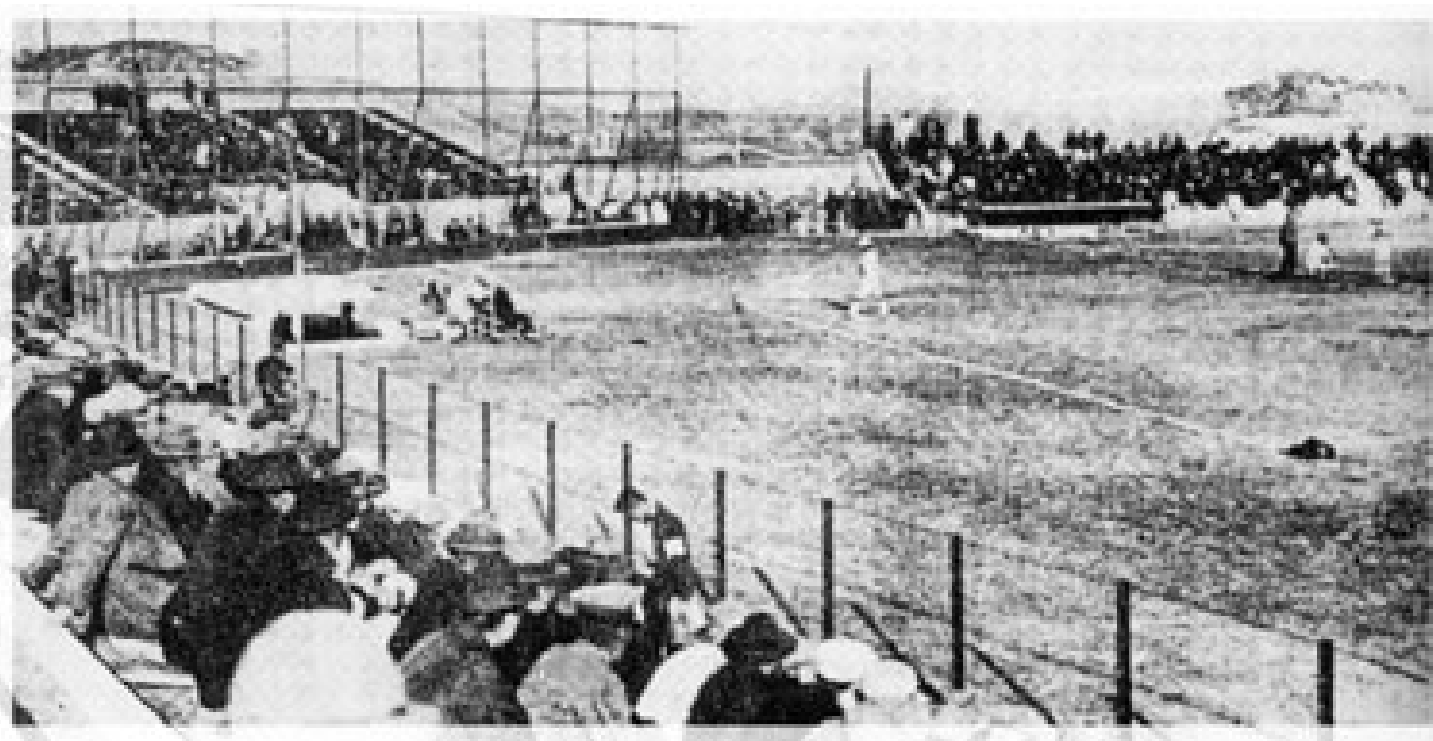
1일 20여만명을 실어 나르는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인천 지상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유도했으며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 공해를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공사는 지하철의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각종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 역무위탁실시, 캐노피설치협약 등 경영개선을 위한 성과를 거두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재도약의 원년'을 선포한 공사는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운영 시스템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그라운동장’

인천 체육은 인천 최초의 공설운동장인 윗터골 운동장(현 제물포고 자리)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1908년 4월 25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인천부 관공립사립 각급학교가 춘계연합대운동을 본항(本港) 송림동 후원(後園)·장소 미상)에서 실행한다 하더라...’라는 기사를 보면, 학교 체육이 왕성했음을 알 수 있다.

글 · 조우성 시인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



1945년 가을, 야구장. 전인천 팀과 미군 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1968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식 광경

인천의 각급학교는 연합대운동을 개최해 왔고, 1912년에는 인천 지역 유지들이 ‘인천청년체육부’를 창설하여 체육의 기틀을 다졌다. 매일신보는 1912년 6월 18일자에 ‘근일 인천의 유지, 신사들은 조선 체육의 유치함을 애석히 여긴 결과로 각기 약간의 금액을 내 인천청년체육부를 창설할 예정이더라.’고 보도하고 있다. ‘인천부는 1920년 11월 옹봉산의 분지 지역을 고르고, 수도와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인천공설운동장이라 했으나 세간에서는 ‘윗터골 운동장’이라 불렀다. 그런데 1934년 인천부가 그 자리에 인천중학교를 세우기로 해 도리 없이 공설운동장을 도산정(桃山町·현 송의동)으로 옮겼다. 당시 도산정은 인적이 드문 교외였다.

겨울철 운동장에 물을 뿌려 만든
스케이트장에서 머플러를 날리며 청춘을 구가했던
낭만 등이 아련히 떠오른다.

도산공원(현 광성고 자리), 옛 우각역(牛角驛·현 도원역) 터, 알렌 별장이 둘러 서있는 아름다운 풍광이었다. 인천부는 그 한가운데의 부지 1만5천623평을 확보해 1934년 7월, 5백 석 규모의 정구장을 완성했고, 2년 뒤에는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사무실, 화장실 2개소를 준공했다. 야구장은 정면 1천 석, 좌우측 각 2천 석 등 5천 석(외야석 없음)이었고, 육상경기장은 400m 트랙으로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윗터골 운동장이 산기슭을 천연 스탠드로 사용하데 비하면, 도산정 공설운동장은 그런대로 콘크리트 스탠드를 갖춘 근대적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곳을 무대로 한 인천 스포츠는 윗터골의 전통을 이어받은 야구가 초강세였다.

일본 한큐(阪急) 브레이브스(현 오릭스 버팔로스)의 유완식, 코시엥(甲子園)대회에 출전했던 김선웅, 장영식, 연희전문의 선수 박현덕은 인천 야구의 ‘전설’을 만들어 간 인물들이었다. 특히 수차례나 전조선야구대회 제패와 일본 고시엔대회에 조선 대표로 출전했던 인상(仁商·현 인천고)의 활동은 인천 야구의 기반을 다진 화려한 역사로 기록된다.

그러나 일제는 패색이 짙어지자 야구를 적국의 스포츠라며 중지시키고, 식량을 증산한답시고 소화고녀(昭和高女·현 박문여고) 학생들을 동원해 야구장에 콩을 심는 등 기괴한 발악을 했다.

야구 시합이 재개된 것은 광복 후였다. 1945년 9월 중순, 콩밭이 된 운동장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미군 통역을 맡고 있었던 체육인 정용복이 나서서 미공병대와 보수 작업을 했고, 운동장 최 씨가 마지막으로 백색 라인을 번듯하게 그어 야구장을 우리 품으로 되돌아오게 했다.

이 운동장에 청춘을 불사르며 백구(白球)의 향연을 벌였던 인천 야구계의 원로들이 이끌었던 인천고와 동산고의 활약상은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 체육사에도 길이 빛날 위업이었다. 인천고의 황금사자기, 봉황대기, 화랑대기, 전국4도시선발교교야구대회, 한국야구100주년기념 최우수 교교야구대회의 우승과 동산고의 청룡기, 화랑대기, 황금사자기, 대붕기, 봉황대기, 무등기 우승, 그리고 제물교교의 청룡기 준우승, 화랑대기 우승 등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 명승부들이었다.

육상경기장에 얹힌 추억들도 시원한 그늘을 마련해 주었던 질푸른 포플러처럼 선연히 떠오른다. 초등학교 때의 운동회, 응원가를 부르며 기세를 올렸던 교교 시절의 학교 대항 체육대회, 세 번이나 열었던 전국체전, 미군들이 벌



스케이트장 입장권 매표소. 학생 소인 50환, 어른 1백환, 단체 학생 30환이었다.



스케이트를 즐기고 있는 1960년대 학생들. 뒤에 도원극장(현 체육회관 자리)이 보인다.

였던 미식축구의 관전, 겨울철 운동장에 물을 뿌려 만든 스케이트장에서 머플러를 날리며 청춘을 구가했던 낭만 등이 아련히 떠오른다.

인천 체육의 산실이었던 공설운동장이 도시 재개발에 따라 헐린다고 한다. 육상 경기장 자리에는 최신식 축구 전용구장이 생긴다니 그런 대로 위안이 되나 최근 열렸던 황금사자기 예선전, 전국대학춘계야구대회를 끝으로 ‘그라운동장(60년대의 운동장 별칭)’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회자정리라 했던가! 비록 ‘송의종합운동장’은 인천 체육사의 한 페이지로 남겠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에 두고 인천은 바야흐로 스포츠 도시로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최신식 국제 규모의 각종 스포츠 시설의 건설도 착착 진행중이다. 월드컵 개최 이후 이렇듯 인천 체육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에 그 저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아쉬운 결별에 다소나마 위안이 된다.

아듀, 추억의 ‘그라운동장’ 이여! ♡

소리없는 저승사자



우리나라 성인의 4명 중 1명 이상이 고혈압에 해당되며 40세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가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으며, 최근에는 식생활의 변화로 고혈압이 어린이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고혈압을 자세히 연구한 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인구중 고혈압 유병율은 남자 30%, 여자 25.9%에 이른다.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혈압이 높을수록 증상이 강하게 오는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며 일부 환자만이 증상을 호소한다.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종종 뒷머리가 땡하다, 어지럽다, 쉽게 피로해 진다 등을 호소한다. 특히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피로한 경우에 이러한 증상이 잘 나타난다.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는 흔히 몸이 붓는다, 숨쉬기가 곤란하다, 가슴이 아프다, 두통이 오고 잘 안 보인다고 호소하며, 뇌혈관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구토나 의식장애 등 더욱 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고혈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차성 고혈압(본태성 고혈압)은 왜 생기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요인들이 모여서 고혈압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가족력)이 가장 중요하다. 고혈압을 잘 생기게 하는 원인을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로는 종족(흑인 > 백인), 나이, 가족력이 있다. 또 노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비만, 운동부족, 흡연, 염분 섭취량, 염분에 대한 과민반응, 칼륨섭취 부족, 알코올의 과다섭취, 스트레스 등이 있다.

이처럼 고혈압의 발병과정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관여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방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알려져 있는 여러 위험인자들을 피한다면 고

혈압의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수축기 혈압이 계속 130에서 139mmHg 사이, 이완기 혈압이 85에서 89mmHg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 환자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을 감량을 하고, 주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 저지방, 저염분 식사를 하고,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경우 금연을 실천하고,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 등이다. 대부분 고혈압이 생긴 다음에 위와 같은 노력들을 하지만 고혈압이 발병하기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고 ‘조절하는’ 질환이므로 약물 치료 및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1기 고혈압일 때에는 체중조절, 소금섭취제한, 음주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림으로써 관리할 수 있다. 이런 비약물요법들은 약물요법을 쓰게 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므로 고혈압환자는 약물요법을 받는 경우에도 잘못된 생활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약을 먹기 꺼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혈압이 약간만 높은 경우에는 식이요법과 체중조절, 적절한 운동만으로도 혈압을 내릴 수 있고 먹던 혈압약도 양을 점점 줄이다가 중단할 수도 있다. 또한 혈압약은 마약처럼 양을 점점 늘려야 한다면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 복용해도 몸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환자 임의로 복용을 중단할 경우 오히려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압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



글 · 박영훈
 인천의료원 3내과 과장

싸움과 정당방위



Q 갑과 을이 연쟁을 하던 중 을이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갑이 격분하여 을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을은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먼저 싸움을 걸었고 그 후 을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갑에게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요.

A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범죄행위, 특히 살인과 관련하여 정당방위를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는 과정(범죄당시까지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 살인 당시의 정황을 살살이 파헤쳐 판사에게 전달하는 변호사 등)을 그린 영화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법현실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법적인 현실보다 영화를 쉽게 접하다 보니, 현실보다도 영화의 내용을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우리 형법상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인정되며, 방어를 위한 행위인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갑은 자신의 경우 을의 폭행에 대항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을을 폭행한 것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싸움 중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보아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판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영화와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냄으로써 다툼을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글 · 김성규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 861-5511)

드 / 립 / 니 / 다

Incheon in pocket

시 공보관실에서 발간한 <Incheon in pocket>은 인천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첩 사이즈(10cm×16.7cm)의 소책자이다. 총 70페이지의 이 책에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알차게 담겨져 있다.

‘인천의 역사’에는 미추홀에서 광역시까지의 발자취가 연표와 함께 정리돼 있으며 ‘Fly 인천’ 편은 크게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으로 구분돼 있다. 그 속에는 인천대교와 인천타워, 월드트레이드센터 등 인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청사진도

담겨져 있다. ‘도심에서 즐긴다’ 편에는 월미도, 연안부두, 차이나타운, 소래포구 등 인천의 관광명소가 소개되었다. ‘5천년 역사의 축소판, 강화’ 편에는 고인돌, 전등사, 광성보 등이, ‘인천의 섬’ 편에는 백령도, 덕적도, 장봉도, 영흥도 등 인천 앞바다 섬들의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책 끝에는 인천지도와 강화지도, 그리고 수도권 전철도가 접지 부록으로 삽입돼 있다. <Incheon in pocket>은 영문판, 중문판, 일문판도 함께 발행되었다.

▶ <Incheon in pocket>는 시청 <굿모닝인천> 편집실(440-2074)을 방문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근대식 군함 함장

신순성

카툰니스트 · 이영호 (kaljebi@paran.com)





내 품에 온 셋째

파르르릉~ 전화벨 소리에 수화기를 든 나는 무척 놀랐다. 올케가 쌍둥이를 낳고 위독하다는 말에 전화를 끊고 놀란 맘으로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하니 온 가족들이 났 놓고 중환자실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평소에 건강했던 터라 갑자기 무슨 일인지 어찌된 영문인지, 어떤 상황인지... 결국 아이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쌍둥이 두 아이만 남았다. 세상 떠난 아이 엄마의 슬픔보단 저 아이들을 어찌나하는 걱정이 먼저 앞섰다. 큰 아이는 언니가 데려가고 나는 작은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경황도 없고 나에게는 두 딸이 있었기에 세 아이 엄마 될 자신도, 자격도 없었지만 엄마가 되어주겠노라는 맘으로 내 품에 안았다.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하나요~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랬던 아이가 벌써 커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얼마나 뿌듯하고 이쁘지~ 학교에 다녀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종알종알 얘기하기 바쁘다. 요즘에는 짝꿍도 친구도 생겨서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며 나도 같이 웃곤 한다. 8년 전 내 품에 안았을 때가 문득 떠오른다. 지금은 가족으로 받아준 남편에게도 고맙고 큰 아이들에게도, 잘 자라고 있는 셋째에게도 고맙고 행복감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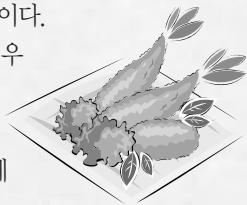
이애란_계양구 박촌동

새우 한 마리에 담긴 가족 사랑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지 현관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다. 얼마나 급했으면 현관문을 여는 번호 키를 잘못 눌러 발만 동동 구르며 어서 빨리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두드린다. “뭐가 그래 급해? 천천히 좀 다니지.” “엄마, 사실은 엄마한테 줄게 있어서 빨리 뛰어 왔어요.” 아들은 숨을 헐떡거리며 가방을 내려놓기가 바쁘게 뭔가를 꼬집어냈다. “엄마, 이거 먹어 봐요. 되게 맛있어요!” “새우튀김이잖아. 웬 새우가 가방에서 나와?”

아들의 얘기인즉, 오늘 학교 급식시간에 반찬으로 조그만 새우튀김이 2개 나왔는데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엄마가 생각나서 몰래 넣어온 거라며 어서 먹어보란다. 며칠 전 온 가족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새우 요리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자 나도 모르게 ‘새우튀김 정말 맛있겠다. 언제 한 번 꼭 먹고 싶다.’ 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그걸 흘려듣지 않고 급식시간에 새우를 보자 엄마 생각이 났던 것이다.

“너 먹지 뭐 하러 가져왔어? 너도 새우 좋아하잖아.”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엄마, 앞으로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새우튀김 왕창 사드릴게



요.”한다.

요즘은 수입해오는 냉동새우도 많아 그리 비싸지 않아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다먹을 수 있다. 아끼느라고 못 사먹을 정도는 아닌데 아들은 엄청 귀하고 비싼 것이라 생각했었나보다. 비록 화장지에 돌돌 말려 튀김옷도 다 벗겨진 식어 빠진 새우 한 마리였지만 가족이란 뉘지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아들아 고맙다. 그 새우 정말 맛있더라. 우리 아들 마음이 듬뿍 담겨서 그랬나봐!’

최미연_부평구 삼산동

고마운 우리형

저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두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3학년 둘째는 형을 유난히 좋아하고, 형은 동생을 무척 귀여워하며 잘 챙깁니다. 물론 싸울 때도 많지만요. 둘째 아이 선생님께서 읽기시간에 동시에 대해서 가르치며, 동시를 한편씩 짓도록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지은 동시인데 너무 사랑스러워 올려 봅니다.

고마운 우리 형 김대연
내가 무엇이든 만들어 달라면
똑딱 만들어 주는 친절한 우리 형
모르는 것 물으면
언제나 잘 가르쳐 주는
친절한 우리 형
싸워도 먼저 화해하자는 고마운 우리형



한경희_남구 송의4동

가정은 사회의 뿌리

5월은 가정의 달이다. TV방송이나 각 신문매체들은 5월이 되면 앞 다퉈 특집을 준비하는 등 온통 가정의 달 행사로 요란하다. 그러나 바쁜 직장일로 심신이 지쳐있는 요즘, 가장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크고 작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이라도 다녀와야 하고, 어버이날에는 그동안 무신경했던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 온갖 머리를 짜내야 한다.

가정은 사회활동의 뿌리다. 가정의 기강이 바로서야 사회도 바로 설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물질로 보답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이젠 물질보다 먼저 올바른 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이 우선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정신이 바르면 보은하고 감사하는 정을 키워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불우한 이웃도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질은 물질로서만 만족하는 관계에 놓이지만 마음은 만족하는 그 속에서 보람의 세계를 만들어 낼 것이

다. 우리가 10년 전 만났던 IMF가 모두 계분수를 모르고 겉치레에만 치중하여 넘치게 행동한데서 온 것이라면, 해체되는 가정 이 요즘 왜 늘어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록의 풋풋한 정서로 거듭날 때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5월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소외된 이웃도 한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권영수_경남 마산시

보고싶은 아들이

아들이 군대 입소한지도 어느덧 2주가 넘었구나. 근데 엄마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구나. 잘 지내지? 멀고 낯선 포항에 너를 입영시키던 날 어느덧 커서 입영하는 네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대견했지만 엄마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네가 좋아서 택한 해병대지만 엄마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

았단다. 하지만 아들을 믿고 지켜볼게. 그리고 이젠 울지 않게. 힘든 훈련 잘 마치고 정말 멋진 군인, 든든한 아들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으니 2년여의 시간을 잘 기다릴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서 힘들지? 항상 네 자신이 제일 먼저라 생각하고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단다. 그리고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잖니. 아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정말 안심이 되구나. 그리고 아들 엄마 걱정은 하지마라. 아들이 군 복무하는 동안 엄마도 운동 열심히 하고 또 하는 일이 있으니 더욱더 씩씩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하고 기다리고 있을테니까. 아빠는 늘 우리 석배 잘하고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돌이켜보면 넌 항상 웃음과 기쁨을 주는 자랑스럽고 착한아들이 었단다. 아들이!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될 군대라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멋진 군생활을 하고나면 먼 훗날 사회에 나와서 네가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 네 말대로 우리가족 모두모두 파이팅 하자꾸나. 지금은 우리 세 식구가 몸은 비록 헤어져있지만 마음은 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아들이! 무지무지하게 사랑한 데이~.

우성순_연수구 송도동

있을때 잘(하)해!!

내 어릴적 그러니까 20년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살았다. 맏딸인 나, 그리고 여동생과 남동생, 부모님, 이렇게 다섯이서 북



적이며 바쁘게 살았는데, 나 차이가 한두 살밖에 안되어서인지 서로 티격태격 거리는 건 일상이었다. 사이좋을 때 서로 선물로 주고받았던 보물 상자들은 싸울 때마다 제 자리 찾아가느라 바쁘고, 내게 한 대 쥐어 박힌 여동생은 엄마에게 이르러 뛰어가고, 남동생은 의자 들고 쫓아오고... 또 한때는 강아지도 식구가 되어 이불 마를 날이 없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연필깎이가 귀해서 아빠가 손수 연필을 깎아주셨는데 연필 끝이 뭉뚝한게 불만이어서 학교 가서 매번 다시 뽕뽕하게 다듬던 기억도 난다. 우리 삼형제가 모두 서른다섯을 넘기고 난 지금, 친정부모님만 고향인 전주를 지키고 계신다. 여동생은 대만사람과 결혼해서 이국땅 일본에서 살고 있고, 나는 이 곳 인천에서 남동생은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2월말 친정엄마 그리고 딸아리와 함께 일본 여동생네를 다녀왔다. 유학중인 여동생 부부는 생활비를 쪼개 유학남새가 자옥한 일본 노천탕을 다녀오게 해주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삿뽀로 공항 가이드를 맡고 있는 여동생은 지금도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면 우리딸이 ‘이모’ 하며 달려오고 그 뒤로 엄마와 내가 환히 웃으며 다가올 것 같다며 그리움을 이국땅에서 이메일로 전해왔다. 나 역시나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과 함께 어른 키만큼 쌓인 눈발에 누워 뒹굴거리며 장난치던 시간이 지금도 손에 잡힐 것처럼 느껴진다. 어렸을 때 좀더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철없던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운 마음이 요즘 들어 부쩍 많이 찾아온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대한 미련은 훌훌 털어내고, 오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더욱 희망차게 맞이하자고 마음을 다져본다. 오늘 퇴근 후엔 여동생에게 이메일을 띄우려나. 가까운 후일에 한 술밥 먹고 한 이불 덮으며 전처럼 아옹다옹 살아보자고!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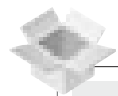
양진경_부평구 부개동

다음달 테마는 ‘군대’입니다.

‘군대’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5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2072)



info box

저소득 아동 심리치료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에서는 가족관계 및 사회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동 심리치료 사업을 실시합니다.



- 모집기간 : 연중
- 대상 : 문제행동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 (기초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등)
- 문제유형 : 정서불안정, 과잉행동장애, 주의력결핍, 학교생활 부적응, 가출, 도벽, 폭력 등
- 치료유형 : 미술심리치료
- 치료내용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아동문제 및 정서 파악을 위한 초기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 심리분석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합한 미술치료 실시
- 치료비용 : 무료
- 접수방법 : 방문 및 공문(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 접수
- 접수처 : 시 여성복지관 상담실 ☎ 440-6566~7, 434-018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교통정체가 잦은 교차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 상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4월부터 집중 단속을 하여 적발 시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1. 교차로 꼬리물기

진입금지라는 결개형 깃발을 부착해 혼잡할 때는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2. 정지선 위반

정지선은 보행자의 안전이며 정지선을 지키면 차량 연료비를 최대 11%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3. 과속 금지

현재 구간과속단속시스템은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과 죽령터널, 서해대교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천727대인 무인 단속 카메라도 도로 20km당 1대씩 설치할 계획이다.

- 제한 속도를 40km/h초과한 경우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



- 20km/h 초과~40km/h 이하일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 20km/h 이하일 경우 범칙금 3만원 부과

4. 끼어들기

'끼어들기 무인단속 장비'를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5.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중앙선 침범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문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지부 ☎ 830-6162

동구청소년수련관 이용하세요

구분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회원모집	문화존 'Go Go 쌍' 상담페스티벌	문화존 'Go Go 쌍' Pre 성년의 날 (청소년가요한마당)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과 전통 음식 만들기 •외국인과 함께 역사탐방, 부대행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문화존 •스트레스 대처 방법 •문화한마당, 전시존, Go Go 쌍 카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한마당 청소년가요제, 동아리 초청 공연 •투표하기, 모의 주민등록증 만들기, 성인의 의무와 권리 체험부스
활동특전	외국인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제공, 외국어능력 향상	청소년들에게 발산의 장을 마련, 마음껏 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제공.	미리 성인의 권리와 의무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함양
활동기간	4월~8월(월 2회 진행)	5월 10일	5월 24일
모집대상	외국인 10명	인천지역 내 중·고등학생	인천지역 내 중·고등학생 (청소년가요제 참가자 모집)
신청방법	4월~5월 8일		전화 또는 방문신청

- 문의 : 동구청소년수련관 문화사업팀 ☎ 761-1318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인천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연구개발 기술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8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산업재산권 출원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기술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방향제시, 중복연구 투자방지 및 특허분쟁을 예방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08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선행기술조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비용 보조
 - 지원내역 : 특허출원 - 1건당 70만원 지원, 실용신안출원 - 1건당 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2008년 2월~2008년 12월
- #### 2. 선행기술조사지원사업
- 지원내용 : 특허성조사, 기술정보조사, 침해자료조사, 신기술인증조사 지원
 - 지원기간 : 2008년 2월~2008년 12월
 - 문의 및 접수 : 인천지식재산센터 ☎ 810-2872, 2873
E-mail : beensure@incham.net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하세요

1. 성공하는 부모들의 7가지 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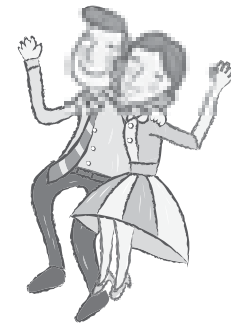
- 일시 : 5월 7일(수)~9일(목)
- 대상 : 서구 관내 거주 부모 20명(선착순)
- 내용 : 습관의 기본개념, 7가지 습관
- 신청방법 : 전화접수, 인터넷 접수
- 문의 : 가족교육팀 ☎ 569-1545

2. 나의 사랑, 나의 생명

- 일시 : 5월 16일(금) 오전 10~12시
- 장소 :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
- 대상 : 서구 관내 주민 100명
- 내용 : 생명 사랑, 자기 존중
- 문의 : ☎ 569-1545, ☎ 560-5006

3. 반딧불 가족문화축제

- 일시 : 5월 24일(토) 오후 2시~6시
- 장소 : 서곶근린공원
- 대상 : 서구지역 주민 누구나
- 내용 : 가족문화체험, 가족장기자랑, 레크레이션, 축하공연 등
- 문의 : 가족문화팀 ☎ 569-154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 신청 → 방문조사실시 → 1차 등급판정 → 의사소견서제출 → 2차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결과

통지 → 요양서비스이용

※ 장기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 1~3등급을 인정받아 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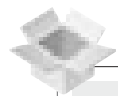
- 신청시기 : 4월 15일(화)부터 (급여는 7월부터 실시)
- 대상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운영센터,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본인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 대리인 자격 : 가족, 인척,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서류 : 신청서(신청장소 비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해관계인의 경우), 의사소견서(65세 미만자)
-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4.05%
- 본인부담 : 재가서비스 - 이용액의 15%, 시설서비스 - 이용액의 2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의 50%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www.longtermcare.co.kr, 각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환경투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와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위해 환경투어를 실시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자원의 재생산과 이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투어일시 : 5월 10일(토) 오후 1시 30분
-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40명
- 장소 : 승기사업소 → 송도종합스포츠센터 → 청라사업소
- 접수기간 : 4월 14일~5월 5일
- 참가비 : 없음 / 간식 제공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pot924.org)에 접속후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자유게시판에 접수
- 문의 : 청소년수련관 ☎ 833-2010, 2012
청소년지도사 이해란



info box

용마루 야학교 학생 모집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 해야만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을 위해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문쳐 야학을 한지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지 검정고시만이 아닌 정말 학교의 추억까지 드립니다. 학업에 뜻이 있으신 분들 오셔서 함께 해요.

- 수업료, 교재비 : 전액 무료
- 교과과정 : 2년 교과 과정으로 중학과정, 고등과정 2반 운영
- 모집기간 : 5월 1일(목)~31일(토)
- 문의 : 용마루야학교(남구 주안동 264-5 창명빌딩 4층)
☎ 884-7784, bawuny@naver.com, cafe.naver.com/1974yongmaru

웰빙체조교실 운영합니다

인천전문대학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는 인천시민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2008년 웰빙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4월 1일~10월 31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6시
- 장소 : 인천전문대학 예체능학부 운동장
- 대상 : 인천시민 누구나(인원제한 없음)
- 주관 : 인천전문대학 스포츠과학연구소
- 프로그램 : 생활체조 및 스트레칭 등
- 기타 : 수료자에게 티셔츠 제공예정
- 문의 : 인천전문대 산학진흥과 ☎ 760-8115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느리게 기른다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의 인생은 초등학교에 달려있다」 「현명한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대화법」 등의 저자인 신의진 교수(연세대)를 모시고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합니다. 자녀양육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주제 : 현명한 부모는 자녀를 느리게 기른다
- 강사 : 신의진 교수(영동세브란스 정신과)
- 일시 : 5월 22일(목) 10시~12시
- 장소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대강당(간석동 소재)
- 문의 : 인천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www.inyouth.or.kr)
☎ 429-5562/3, 국번없이 1388



미추홀 여름학기 수강생모집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많은 시민들께 문화적 삶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하고자 제28기 여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5월 6일(화)~6월 7일(토)
- 강좌기간 : 6월 2일(화)~8월 23일(토) 3개월
- 장소 : (신)중구보건소 4층 미추홀문화회관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특별기획! 중국문화역사탐방, Go to China~

■ 명사특강

- 시를 통해 본 인천의 역사
- 강사 : 전 인천문인협회장 김학균
- 일시 : 6월 16일(월) 오후 2시~3시 30분

- 대상 : 일반인 / 주부
- 수강료 : 무료

■ 문화시민을 위한 무료 강좌(3개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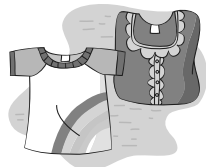
- 어린이 : 어린이 한자, 어린이 중국어, 멋지고 신나는 요들나라, 어린이 교육연극 & 뮤지컬
- 성인 : 서예 교실, 직장인을 위한 유화 쉽게 배우기 - 기초반, 주부 연극 & 뮤지컬, 성악 초급, 스윙댄스, 신나는 차밍댄스, 수필창작과 문학의 이해, 사진 촬영, 일어 회화, 녹색식물과 원예치료, 실버한국무용, 중국어 회화, 프레스플라워 초급, 풍선아트 3급 자격증반, 플로리스트 사범 및 화훼장식사 자격증반, 나만의 DIY만들기 / 목공예 / 가구리품교실, 파티셰교실, 젊은 감각 옷 리폼교실

■ 스피드 1일특강 & 단기특강

- 6월 4일 컨쥘리 우드 - 냉장고 미니홀더 액자 만들기
- 6월 4일 초코아트 - 나만의 문패 꾸미기
- 6월 3일 캔들아트 - 선물용 과일 디저트 향초만들기
- 6월 13일 발도르프 인형 - 별 뽁뽁이 인형 만들기
- 6월 2일~23일 퀼트 - 비치용 빅백 & 모자 만들기
- 6월 2일~9일 에그아트 - 복주머니 액자 만들기
- 6월 9일 클레이 - 엄마와 함께하는 미니탁상시계 만들기
- 5월 27일 모래놀이 - 엄마와 함께하는 모래놀이

- 정규강좌 : 공예, 미술, 무용, 음악, 어학, 교양, 건강, 스포츠, 창의력 계발, 학습 계발, 임신부, 전문인 양성 및 자격증반 창업반, 미용, 어린이요리

- 문의 : 미추홀문화센터 ☎ 765~0220, 0250
www.mchart.co.kr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특약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특별약관(이하 특약) 중 가입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약들을 정리했다.

■ 우량체 할인(건강우대) 특약(생명·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가입자
주요내용	비흡연, 혈압수치, 체격 등 가입자의 건강상태가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성별·연령에 따라 일정비율(예 : 남자7%, 여자6%)만큼 보험료 할인
비 고	회사가 정한 건강상태의 기준 1) 비흡연 : 가입직전 1년간 흡연사실이 없을 것 2) 혈압 : 최대 혈압치(mmHg)가 110~139(mmHg)일 것 3) BMI(Body Mass Index) 수치(체중/신장2)가 20.0~27.9 일 것

■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특약(생명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기 가입자(출생자녀의 부모)
주요내용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이미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약에 가입 할 경우 그 이후 출생한 자녀수에 따라 보험료의 일정비율을 할인 • 보험가입금액 및 출생자녀수에 따라 보험료의 0.5~2.5% 할인

■ 사망보험금 선지급 특약(생명·손해보험)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사망담보 제공 보장성보험 가입자
주요내용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일정기간(예:6개월) 이하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 회사에 따라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치매상태시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간병자금으로 선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보험종목	보장성보험(다만 사망을 보장)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공보실 홍보팀 ☎ 02-3771-5907

5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골관절염 검사

- 검진기간 : 5월 19일(월)~5월 23일(금)(5일간)
- 검진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정형외과)

- 검진대상 : 인천시민에 한함
※신분증(혹은 장애인 및 의료 급여 카드)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명 : 골관절염 검사
- 검사항목 : 방사선 검사
- 검진인원 : 100명
※만60세 이상에 한하며 하루 오전, 오후 각 10명씩 실시합니다.



2. 비만 치료

- 검진기간 : 5월 26일(월)~5월 30일(금)(5일간)
- 검진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3층(한방과)
- 검진대상 : 인천시민에 한함
※신분증(혹은 장애인 및 의료 급여 카드)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료시간 : 오후 1시~오후 4시
- 검진명 : 비만 치료
- 검사항목 : 이침, 약침 요법
- 검진인원 : 80명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 580-6652

인천상공회의소 감정시험 안내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수험인원이 많은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 종목에 한해 수험자들에게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수험자들이 희망하는 일시를 선택하여 지정된 상설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상설검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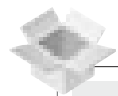
사업 고민 짝~악 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은 매달 10만부씩 발행되어 인천시내의 공공기관과 각 가정에 배포되는 인천 최대의 인쇄매체입니다. 〈굿모닝인천〉의 유료광고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 광고료(1개월·컬러기준)

표4 (맨뒤 겹표지)	표2 (앞표지 뒷장)	표3 (표4 앞면)
2백56만2천원	1백66만5천원	1백28만1천원

※광고 게재 등 문의사항은 공보관실 〈굿모닝인천〉편집팀
(☎ 032-440-20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fo box

■ 시행종목

- 워드프로세서(필기/실기) : 1, 2, 3급
- 컴퓨터활용능력(필기/실기) : 2, 3급

■ 시행일자 : 연중시행

■ 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자정부터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단, 인터넷 접수가 불편한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

■ 시험장소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

■ 시험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 합격자 발표 : 인터넷

(<http://day.passon.co.kr>)으로 확인

- 필기 : 시험 시행일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 실기 : 시험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 공지된 발표일자

한편 국가공인 한자 검정은 90년대 이후, 국제화·세계화의 관심이 서구 중심에서 중국·동아시아 등으로 점차 확장해가는 추세 속에서 한자문화권 국가간 의사소통 수단으로 한자의 이해 및 구사 능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 상공회의소 한자 검정 일정

회 차	3회	4회	5회
구 분	필기	필기	필기
등 급	고급·중급·초급	고급·중급·초급	고급·중급·초급
원서접수(인터넷)	7월 2일~7월 8일	8월 13일~8월 19일	10월 15일~10월 21일
시 험 일	7월 26일	9월 6일	11월 8일
합격자 발표일	8월 14일	10월 2일	12월 2일

■ 문의 : 상공회의소 북부사무소 ☎ 501-6700
www.incham.net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특별자수기간 : 4월 1일(화)~6월 30일(월) 3개월간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불입건·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분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

☎ 860-4743~9, 국번없이 ☎ 127, 1301

인천 숲 생태체험하세요

자연의 소중함과 인간과의 상호 공생관계를 스스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자연사랑 정신을 높이고, 인천의 공원·녹지 등 숲에 대한 가치인식 제고로 시민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시 공원녹지과에서 인천 숲 생태체험을 시행합니다.

■ 대상자 : 학생, 청소년, 교사, 학부모 등 2천여명

■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숲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및 중요성 알기

- 도시공원 내 살고 있는 동·식물 생태적 특성 및 이름 알기

- 숲속의 자연소재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학습

- 체험 감상문 쓰기 등

■ 위치 및 대상시설

구분	군구별	공원명	위치	학습장소 및 대상	비고
관내	중구	월미공원	중구 복성동 일원	생태관찰로(3km)	
		호룡곡산 산림욕장	중구 무의동	생태관찰로(2km)	
	동 구	인천교공원	동구 송림동	수목 및 초화류	
	남 구	수봉공원	남구 송의동	자연학습원	
	연수구	청량공원	연수구 동춘동, 청학동	수목 및 초화류	
	남동구	중앙공원	남동구 구월동	수목 및 인공습지	
		인천대공원	남동구 장수동	생태관찰로	
	부평구	부평공원	부평구 부평동	수목 및 초화류	
		원적산공원	부평구 산곡동	수목 및 초화류	
	계양구	계양공원	계양구 계산동	생태관찰로(2km)	
관외	강화군	덕산 산림욕장	강화군 내기면 고천리	수목 및 초화류	
	경기도	국립수목원	경기 남양주시 광릉내	생태관찰로(1km)	주 1회(수요일)

■ 운영기간 및 일정 : 4월~11월

- 관내공원 : 수시 - 교육장소로 자체집결

- 관외공원 : 주 1회(수요일) - 차량지원

■ 참여신청방법

- 신청기한 : 참가예정일 1주일 전까지

- 신청방법

· 학교, 단체 : 책임자(인솔자)를 지정하여 단체용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전자결재시스템, 우편, 팩스(440-3669), 이메일(jojo9427@incheon.go.kr)) 등

· 개인 : 개인용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전화, 우편, 팩스(440-3669), 이메일(jojo9427@incheon.go.kr)) 등
※동일학교에서 다수의 학급이 단체로 신청할 경우 균등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학급단위로 나누어 시행

■ 인천시 지원사항

- 자연체험 장소 및 학습 강사 확보

- 차량(여행자보험가입) : 국립수목원 체험 학습시

※ 체험장소가 신청자(기관)의 관내에 소재할 경우 자체적으로 체험장소까지 이동

※ 우리시에서는 강사 및 장소제공 등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며, 학교별 인솔 책임자에게 안전관리 등 당일의 제반사항을 위임

■ 문의 : 시 공원녹지과 ☎ 440-3739

5월 가정의 달 행사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연락처
5/9~11	화도진축제	화도진공원 일대	동구	770-6102
5/9~18	드림파크 야생식물전시회	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 청사주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560-9369
5/18	아시아 이주민축제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아시아이주민 축제추진위원회	440-2943 451-4513
5/31	인천 Love Family Festival	부평공원	인천시	440-2372
5/28~6/1	부평풍물축제	부평로, 신트리공원 등	부평구청	509-7516

〈굿모닝인천〉을 해외로 보내드립니다

멀리 해외에 있어서 그리운 가족, 친구, 사업 파트너가 있습니까?
인천경제구역 조성,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 인천.

〈굿모닝인천〉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판이 발행돼 130여 개국 해외 공관 등을 통해 인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천소식을 해외에 보내고 싶으신 분은 저희에게 신청하십시오.
〈굿모닝인천〉이 여러분을 대신해 인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료, 우편요금 등은 물론 무료입니다.

■ 신청기간 : 6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e-mail goodmorning@incheon.go.kr 또는 〈굿모닝인천〉 홈페이지(<http://goodmorning.incheon.go.kr>)에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전화 032-440-2074, 팩스 032-440-2079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연락처
5/19~31	바다의 날 행사	인천항 일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880-6227
5/31	바다그리기대회	월미도문화의거리, 자유공원, 인천항갑문	가천문화재단 경인일보사	861-3200

바다의 날 행사

일자	행사명	장소	주최	대상
5/19~31	바다퀴즈대회	www.portincheon.go.kr	인터넷 바다퀴즈대회 (50명에 2만원상당 상품권 증정)	일반시민 학생
5/31	바다그리기	갑문, 월미도, 자유공원	바다를 주제로 한 그리기	초·중·고생
5/25	해상교통관제교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항 및 해상교통 관제센터, 견학/5월 13~17일 인터넷 접수	초·중·고생
5/30	청소년해양교실	화도초등학교 덕적초중고등학교	해양오염과 갯벌에 대한 강의, 해양퀴즈	초·중·고생
5/26~28	팔미도 등대체험행사	팔미도등대	관공선 승선, 등대견학, 팔미도 답사/5월 13일~17일 인터넷 접수	초·중·고생 및 학부모
5/29	인천항 및 갑문견학	인천항, 갑문	인천내항, 갑문견학 및 홍보동영상 시청 등	일반시민 학생

■ 문의 : 인천해양경찰청 ☎ 880-6227



The first modern, western style park in Korea



At the subway station

Visitor : Excuse me, I would like to go to Jayu Park, how do I get there?

Clerk : Take the line one subway to Dongincheon station. When you get there it's only a short walk to the park.

Visitor : Great! Could you please tell me what I can see there?

Clerk : There is a famous statue of General Macarthur. There is also a good view of Incheon Port.

Visitor :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elp.

Clerk : No problem. Have a great day!

지하철 역에서

여 행 객 : 저기, 자유공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할까요?

직 원 : 우선 전철로 동인천역을 가시고요, 거기서 공원까지 걸어서 가셔도 얼마 안 걸립니다.

여 행 객 : 그렇군요! 그럼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 원 : 우선 맥아더 장군 동상이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인천항의 멋진 경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방 문 객 :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 원 : 별말씀을요, 즐거운 여행되세요.



글 · Ryan Patrick O'Malley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 강사

Jayu Park is a famous park in Incheon, only a short walk from China Town. There are many sculptures there including the General Macarthur statue. The Park provides great views of the city, harbo rand nearby islands. The park was the first modern, western style park in Korea. The park can be reached easily by Incheon public transport system and there is no admission charge.

자유공원은 인천에서 유명한 공원으로 차이나타운에서 걸어서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가면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공원에 가면 바다를 포함해 항구 그리고 멀리 섬까지 펼쳐지는 멋진 경치를 시원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은 한국 최초의 현대, 서구식 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인천의 대중 교통으로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찬란한 불교 문화의 꽃

시립박물관 공예실에 전시되어 있는 건칠여래좌상이다. 건칠불(乾漆佛)이란 진흙 등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종이나 삼베 등을 계속 붙여 말린 다음 속을 파내고, 마지막으로 불상에 옷칠을 하여 완성시킨 불상을 가리킨다. 촌촌한 나발로 표현된 머리는 중앙에 육계가 튀어나와 있으며, 중앙계주를 표현하고 있다. 이마 한가운데 백호가 뚜렷하며 내려감은 두 눈과 작지만 꼭 다문 입술에서 명상에 잠긴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팔의 손목은 결실된 상태이다. 건칠불은 고려말, 조선초기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불상도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가탄신일을 즈음해 박물관에서 옛 불상과 마주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ʘ

글 · 사진제공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배꽃의 군무



이혜숙 作 · 65.2cm×53.0cm · Water Color · 2006

유년시절 추억들이 점점 얹어져 간다. 호기심 많던 내 소녀시절 추억의 그 곳. 훗날 내 아이들이 뛰놀던 그 곳. 오래 전 인천 변두리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배 밭 과수원들이, 조금씩 덩치가 커지는 도시의 그림자에 위축되어 사라져 가는 아쉬움.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내게 배꽃 핀 수산동 과수원의 의미는 어릴 적 추억 속으로의 여행, 그리고 깊은 휴식이다. - 이혜숙

80일간의 세계기업 여행

인천세계도시축전 Global Fair & Festival 2009, Incheon Korea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업 중심의 전시와 컨퍼런스, 포럼 등 글로벌 브랜딩을 위한 국제회의 비중을 확대해 개최합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해 ‘투자하면 돈벌고, 방문하면 즐겁고, 머물면 안락한 명품도시 인천’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 일 시 :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 장 소 : 송도국제도시 3공구 일대, 센트럴파크, 투모로우시티, 송도컨벤시아 등
- 관람객 목표 : 총 700만명 (국내 650만명, 해외 50만명)

